

전통시대 기상예측의 자료와 점후론 구조

『임원경제지』 「위선지」 구성을 참조하여

김일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화예술학부 교수, 민속학 전공
kig110@aks.ac.kr

- I. 머리말: 점후학과 물후학
- II. 전통시대 점후론의 범주와 「위선지」의 삼후론적 구성
- III. 시후류 토대로서 24절기 72후법의 성립 고찰
- IV. 점후론의 자료와 「위선지」의 천문기상점후서 구조
- V. 맺음말

I. 머리말: 점후학과 물후학

이 글은 기상기후 관련 역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전통시대에 어떠한 기상예측 논리를 마련하였는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기상예측과 관련한 전통용어로 점후(占候), 망기(望氣), 후기(候氣), 측후(測候) 등이 있지만 점후가 대표적이다.¹⁾ 이에 전통시대 기상예측학은 점후학(占候學)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점후란 말이 쓰이는 용법을 찾아보면, 후한 경학가 왕충(王充, 27-97경)이 저작한 『논형』 「견고편(謹告篇)」에서 “대저 자연의 변이에는 스스로 점후가 있고, 음양의 물기에는 스스로 시종이 있다(夫變異自有占候, 陰陽物氣自有始終.)”²⁾고 하여, 자연의 포괄적 변이를 다루는 말로 점후를 쓰고 있다. 일종의 자연학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물기(物氣)는 천지간에 서로 대응되는 지상의 인물(人物)과 상천의 천기(天氣)를 일컬으며, 하늘이 재이(災異)로써 군주에게 견고(謹告)를 내릴 때 물기(物氣)로써 드러낸다는 것으로, 곧 재이 수단이 되는 자연물(自然物)과 음양기(陰陽氣)의 변화를 지칭한다.³⁾ 따라서 이 대목은 자연의 변이는 물후를 통해 드러나고, 그 물후는 음양의 물기를 통해 드러나되, 자연의 물기에는 처음과 끝이 있어 예측이 가능하다는 맥락으로 읽힌다.

조선시대에 점후란 말은 서운관(書雲觀)의 기상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세종실록』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세종 19년(1437) 4월 주야측후기(晝夜測候器)인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네 벌을 만들었으며, 이 중 한 벌을 “서운관에 주어 점후(占候)에 쓰게” 하였고, 또 하나는 군중(軍中)의 경비업무에 활용토록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세종실록』 4월 15일 조).⁴⁾ 또한 세종 2년(1456) 10월 18일 경성(京城)에서 발생한 지진(地震)

1) 楊昶 편저, 『占候解讀』(廣西民族出版社, 1999), 5-6쪽.

2) 夫變異自有占候, 陰陽物氣自有終始. 履霜以知堅冰必至, 天之道也. [...] 天以鉤星謹告政治, 不改, 將有地動之變矣. (『논형』 제42 「謹告」). 黃暉 撰, 『論衡校釋』(中華書局, 1990) 제42 「謹告」, 645-646쪽.

3) 天地之間, 物氣相類. (『논형』 제32 「說日」, 511쪽); 不通妖祥之道, 不睹物氣之變也. (『논형』 제65 「訂鬼」, 941쪽); 論災異者, [...] 天氣變於上, 人物應於下矣. [...] 故天且雨, 螻蟻徙, 丘蚓出, 琴絃緩, 固疾發, 此物爲天所動之驗也. 故天且風, 巢居之蟲動; 且雨, 穴處之物擾, 風雨之氣感蟲物也. [...] 天氣動物, 物應天氣之驗也. (『논형』 제43 「變動」, 649-651쪽).

4) 최덕경, 「점후를 통해 본 17·18세기 동아시아의 농업 읽기」, 『비교민속학』 32집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서운관 관원(權知司辰 全性)에게 “좌경(坐更)하지 않아서 점후(占候)하는 것을 잃었다”면서 태형(笞刑) 40대를 명한 기록도 보인다(『세조실록』 2년 11월 8일조).

점후를 글자대로 본다면, 점(占)은 미리 본다는 말이고, 후(候)는 묻는다는 뜻이다.⁵⁾ 이때 무엇을 묻는가, 어떻게 묻는가에 따라 문물의 범주가 달라진다.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안부를 묻는 것은 문후(問候)가 되고, 자연물의 변화를 관찰하여 미리 보는 것은 물후(物候)가 되며, 적의 형편이나 동세를 미리 엿보는 것은 척후(斥候)가 되고, 일의 사태나 병세의 흐름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예후(豫候)가 되고, 기상 등의 상태를 관찰하여 미리 예측하는 것은 측후(測候)가 된다. 이런 여러 분야를 포괄하여 논한다면 큰 분과로 ‘후학(候學)’이란 장르를 설정하여 접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연의 사태를 미리 보고 기상기후를 묻는 행위인 기상점후론(氣象占候論)은 다양한 후학(候學)의 일종이라 할 것이며, 특히 계절에 따른 동식물과 자연물의 징후를 관찰하여 기상기후 변화를 예측하려는 영역은 대개 물후학(物候學)⁶⁾이라 불리왔다. 그러나 주변 동식물의 기후 징후에 집중하는 물후학이 다분히 미시적이어서 장기예보가 필요한 농사경영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어려운 기상기

(2006), 314쪽.

- 5) 흔히 占이란 말이 占卜, 占卦, 占星 등의 占術學으로 쓰는 말이라서 현대에 와서는 부정적 어감을 다분히 지니지만, 전통시대 맥락에서 보자면 사물이나 사건의 변화를 미리 관찰하고 예측하는 행위 일반을 일컫는 말일 뿐이다. 『한어대사전』은 占의 용법을 각종 방식의 점복을 통해吉凶을 예측하는 것 또는 숨어 있는 것을 豫測 預示하거나 窺察하는 것 또는 그러한 徵兆나 證驗을 지칭하는 말 등 여러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이 전체를 통괄하는 의미는 ‘미리 본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인간이 자연계에 알 수 없는 미지의 혹은 알고 싶거나 엿보고 싶은 무언가를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보고 알고 싶다는 인간의 강렬한 열망이 반영된 지적 행위를 지칭하며, ‘미리’에 방점이 들어진 말이라 할 수 있다. 候는 엿본다, 정찰한다, 관찰한다, 살핀다, 묻는다, 진단한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 『漢語大詞典』(上海辭書出版社, 1998) 占候 항목.
- 6) 物候란 말은 당 현종대 봉칙찬물인 『初學記』 권3에 “아, 계절이 차례에 따라 돌아오니, 物候의 推移가 탄복스럽다(嗟時序之迴轉, 歎物候之推移.)”라는 남조 양나라 簡文帝의 『晚春賦』를 인용하여 수록하고 있다. 時序와 物候를 연결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漢語大詞典』 物候條). 竺可楨·宛敏渭, 『物候學』(科學出版社, 1979)은 이 분야를 집중하여 천착한 노작인데, 물후학은 기상학과 자매관계이고, 각 지역 특성을 따르므로 지역기상학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있다. 洪世年·陳文言, 『中國氣象史』(農業出版社, 1983), 19쪽에는 24절기와 72후에 병치하여 고대 물후학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로 최덕경, 「중국고대의 物候와 農時 예고」(『중국사연구』 18집, 중국사학회, 2002)는 고대 물후론을 농사짓는 시기 문제와 연관하여 분석한 주목할 만한 논문이다.

후의 예측 문제는 인간생활의 영위에 매우 필요한 부분이고 보면 고대로부터 소홀히 할 수 없었던 장르 또한 '기상점후학'이라 할 것이다.

기상점후학의 갈래도 간단하지 않은데, 『삼국지연의』에서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불렀다는 고사에서 보이듯이 전쟁의 승패에 기상요소 또한 중시되었던 까닭에 고대 병법서에는 적지 않은 비중으로 각종 기상점후법을 수록해왔으며, 농업이나 일상생활의 일기변화 예측을 위한 다양한 기상물후법이 발달하였다. 또한 운기나 신비로운 기세를 관찰하는 운기학 내지 망기학도 별도로 발달하였으며, 천문관측이나 기상관찰을 통해 자연 변화를 예측하려던 천문기상학도 크게 발달하였다. 주술적인 점성학이나 위서학, 추명학 코드를 통해 예보하려는 술수기상학도 적지 않게 동시에 전개되어왔다. 이 글에서는 이런 여러 장르를 포괄하는 광의로서 기상점후학에 관한 자료와 개념을 살펴본다.

요컨대, 자연을 묻는다는 것은 자못 흥미로운 일이다. 인간을 묻는 것이 사상의 논변으로 굽이친다면, 자연을 묻는 점후의 문제는 전통시대 자연학을 읽어내는 또 다른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천문 현상과 기상 현상이 복합되어 있고, 주술 현상과 물리 현상이 구분되지 않았던 전통시대이고 보면, 이 글의 기상점후학 문제는 전통시대 천문학이기도 하고 자연학이기도 하며 인간학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복합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이 분야를 흔히 천문기상학, 천문기상점후학, 기상물후학, 기상기후학 등 여러 가지로 부르지만, 이 글에서는 기상 측면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기상점후학으로 포괄하여 일컫고자 한다.

II. 전통시대 점후론의 범주와 「위선지」의 삼후론적 구성

1. 천상(天象)과 기상(氣象)의 혼합과 분리

현대학문에서 쓰이는 기후학이 지구의 위도에 따른 기단의 변화와 해류의 교차, 태풍의 이동 등 주로 거시지표에 따른 관점이라 한다면, 고대의 기후학은 관찰자인 인간의 입장에서 자신의 주변에서 잡을 수 있는 각종 자연의 변화를 집약시키려는 경험적이고 미시적인 지표에 바탕을 둔다.

전통시대 기후학(氣候學)이 서두에 언급한 후학의 일종이라는 측면에

서 본다면, 기후(氣候)의 학(學)이 아니라 기(氣)의 후학(候學)이라 할 만하다. 이때의 기는 각종 천기(天氣)와 일기(日氣), 운기(雲氣) 등 기상공간에서 발생하는 기상의 기와 절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자연물의 생태 변화를 일컫는 범주라 이를 수 있으며, 이 모든 기(氣) 현상들은 경험적인 지표들이기도 하다.

경험적 지표들 중에서 특히 자연계에서 관찰되는 동식물의 징후 변화를 통해 기상기후를 추단하는 분야는 특히 물후학(物候學)이라 일컬어왔다. 여기에 풍우상설 등의 운물(雲物)까지 포괄한다면 물후학이야말로 전통시대 기상기후의 예측을 위한 전문적 분과라 이를 수 있다. 다만 운물은 대개 천상(天象)의 일종으로 보아 일월성신 다음의 차서로 풍운뇌우(風雲雷雨)를 나열함으로써 천부류(天部類) 내지 천문류(天文類) 속에 배속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전통시대 자연관에서 천상(天象)과 기상(氣象)의 요소가 서로 엄밀히 분리되지 않고 대개는 혼합하여 복합적으로 인식하는 측면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관상감(觀象監)의 관상(觀象)이란 이런 복합적 관점의 산물이라 할 것인데, 관상감은 천상(天象)과 기상(氣象)을 함께 다루는 기구인 것이다. 근대학문에 이르러서야 천문대와 기상대로 분리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에 앞서 조선 후기 근대 직전인 19세기 중반에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별칭 임원십육지)의 저자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전문적 기상점후서로 「위선지(魏鮮志)」를 독립하여 편장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거리라 생각된다.

2. 전문적 기상점후서로서의 「위선지」 성립

이렇게 조선시대 문헌 중에 기상점후학에 관련하여 가장 집중적인 서술을 보인 텍스트는 단연 풍석(楓石) 서유구의 「위선지」를 꼽을 수 있다. 이 텍스트는 조선 후기 실학적 농서의 대표작이자, 조선조 농서의 총완결본이라 평가받는 『임원경제지』의 16지 중 하나이다.⁷⁾ 정조대 규장각 초대 제학(提學)이었던 조부 서명응(徐命膺, 1716-1787)과 관상감

7) 보경문화사 영인본, 『임원경제지』 해제(1983); 이성우, 『韓國食經大典』(1981); 노기춘, 「조선조 농서의 서지학적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02), 151쪽; 조창록, 「서유구·서우보 부자의 放廢期 행적과 蘭湖 생활」, 『한국실학연구』 제16권(한국실학학회, 2008).

제조를 역임한 생부 서호수(徐湖修, 1736-1799)에 이어 달성 서씨 3대 제학으로 이름을 떨친 서유구는 천문학, 농학 등 과학적 지식 보급에 애써온 가업의 일환으로 순창군수, 전라감사 재직 시 실용 농서에 관심을 기울여 본리지, 관휴지, 예원지 등 『임원십육지』(113권 52책)를 편찬하였고, 그중 천문기상점후서에 해당하는 제6 「위선지」를 엮었다.

그 「위선지」 서문에서 “지구를 감싸 도는 태양의 운행 속에서 더위와 추위, 수해와 가뭄, 바람과 비, 흐린 날과 맑은 날이 있는 것이니, 이 법도를 밝힌다면 기후를 예점하는 실체를 거의 말할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이 편명이 천문기상점후서 성격임을 분명히 밝혔고, <후세편>(권1, 2, 3)과 <후풍우편>(권4)으로 구성된 「위선지」 4권(권33-36)으로 저록하였던 것이다.⁸⁾

여기서 <후세(候歲)>는 1년 열두 달 세시(歲時)에 따라 변화되는 ‘1년 점후’란 뜻이며, <후풍우(候風雨)>는 ‘풍우 점후’란 뜻이나 현대식으로 변안하자면 ‘기상점후’ 정도가 된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아직 기상이란 용어가 일반화되지 않은 것이고 보면 바람과 비인 풍우로써 다른 모든 기상 현상을 대표한 맥락으로 읽힌다. 이에 기상의 전통용어가 다른 아닌 풍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유구가 서술한 점후론은 ‘일년세시점후’와 ‘풍우기상점후’의 두 갈래로 구성된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세부 목차를 살펴보면 좀 더 다양한 구성이 보인다.⁹⁾

권1 <후세(상)>은 정월점에서 12월점까지여서 열두 달 세시점후로 되어 있고, 권2 <후세(중)>은 20항목으로 편제되었는데 이를 내용상 재구성하면, 첫째, 천문점후에 해당하는 점천(占天)·점일(占日)·점월(占月)·점천하(占天河) 항목(4)과 둘째, 풍우점후에 해당하는 점풍(占

8) 김일권 역주, 『임원경제지 위선지 해제』, 『임원경제지 위선지』 2책(소와당, 2011, 12), 569-578쪽.

9) 『임원경제지』 「위선지」 목차

권1 候歲(上): 1. 正月占 2. 二月占 3. 三月占 4. 四月占 5. 五月占 6. 六月占 7. 七月占 8. 八月占 9. 九月占 10. 十月占 11. 十一月占 12. 十二月占

권2 候歲(中): 1. 占天 2. 占地 3. 占日 4. 占月 5. 占風 6. 占雨 7. 占雲 8. 占霧霞 9. 占虹 10. 占雷電 11. 占霜露 12. 占雪 13. 占雹 14. 占氷 15. 占天河 16. 占草木 17. 占穀 18. 占禽獸 19. 占蟲魚 20. 占曆日

권3 候歲(下): 1. 占星 2. 占運氣

권4 候風雨: 總論 1. 占天 2. 占地 3. 占日 4. 占月 5. 占星 6. 占風 7. 占雨 8. 占雲 9. 占霧 10. 占霞 11. 占虹 12. 占雷電 13. 占霜雪 14. 占山水 15. 占草木 16. 占禽獸 17. 占蟲魚 18. 雜占 19. 占時候 20. 占曆日

風) · 점우(占雨) · 점운(占雲) · 점무하(占霧霞, 안개와 노을), 점홍(占虹) · 점뢰전(占雷電, 우레와 번개) · 점상로(占霜露, 서리와 이슬) · 점설(占雪), 점박(占雹) · 점빙(占氷) 항목(10)이 있고, 셋째, 대지와 동식물의 기후징후를 담고 있는 물후기상에 해당하는 점지(占地) · 점초목(占草木) · 점곡(占穀) · 점금수(占禽獸), 점충어(占蟲魚) 항목(5)이 있으며, 넷째, 자연물이 아닌 관념적 기상학이라 할 수 있는 점역일(占曆日) 항목(1)이 있다. 권3 <후세(하)>는 점성(占星)과 점운기(占運氣)의 두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권4 <후풍우>는 권2의 목차와 거의 같은 20항목이다. 점설 · 점박 · 점빙 · 점천하 · 점곡이 빠지고, 점성(占星) · 점산수(占山水) · 잡점(雜占) · 점시후(占時候)가 추가되었으며, 점무하가 점무(占霧)와 점하(占霞)로 분리되어 항목 수는 20개로 변동이 없다. 내용상 재분류하면 권2의 구조와 같아 보인다.

이상의 「위선지」 전체를 점후의 형태와 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다섯 종류의 점후론이 포괄된 것이라 이를 수 있다.

첫째는 열두 달에 따른 월별 후세, 곧 월후(月候)와 계절 내지 절기에 따른 절후(節候) 등을 다룬 세시점후(歲時占候)를 꼽을 수 있다(권1 12월占 및 권4의 占時候).

둘째는 일월식 등 천변과 관련하여 점후를 추산하는 천문점후(天文占候)이며, 권2의 천 · 일 · 월 · 천하(은하수) 및 권3의 점성, 권4의 천 · 일 · 월 · 성 항목(4)이 해당한다.

셋째는 풍운뇌우 등 기상 요소에 대한 풍우점후이며, 권2 풍(風) · 우(雨) · 운(雲) · 무하(霧霞) · 홍(虹) · 뇌전(雷電) · 상로(霜露) · 설(雪) · 박(雹) · 빙(氷) 및 권4 풍 · 우 · 운 · 무(霧) · 하(霞) · 홍(虹) · 뇌전(雷電) · 상설(霜雪) 항목(8)이 해당한다.

넷째는 동식물과 자연물 등의 물상점후(物象占候)로 권2 지(地) · 초목 · 곡(穀) · 금수 · 충어 및 권4 지 · 산수 · 초목 · 금수 · 충어 · 잡점 항목(6)이 해당한다.

다섯째는 역일간지(曆日干支)나 오운육기(五運六氣) 등에 따른 술수점후(術數占候)로, 권2 점역일(占曆日)과 권3의 점운기(占運氣) 및 권4 점역일이 해당한다.¹⁰⁾

10) 최덕경은 「점후를 통해 본 17·18세기 동아시아의 농업 읽기」(2006), <3장 점후의 유형과 방법>에서 조선 중기 『稽經』(1676)을 근거로 삼아, 점후 유형을 12월 점후,

표1-「위선지」의 형식적 점후 분류

구분	候歲			候風雨	
	권1	권2	권3	권4	
1	歲時占候(歲候)	12月占	-	-	占時候(1)
2	天文占候(天候)	-	占天, 占日, 占月, 占天河(4)	占星(1)	占天, 占日, 占月, 占星(4)
3	風雨占候(風候)	-	占風, 占雨, 占雲, 占霧霞, 占虹, 占雷電, 占霜露, 占雪, 占雹, 占冰(10)	-	占風, 占雨, 占雲, 占霧, 占霞, 占虹, 占雷電, 占霜雪(8)
4	物象占候(物候)	-	占地, 占草木, 占穀, 占禽獸, 占蟲魚(5)	-	占地, 占山水, 占草木, 占禽獸, 占蟲魚, 雜占(6)
5	術數占候(術候)	-	占曆日(1)	占運氣(1)	占曆日(1)

3. 「위선지」의 시후(時候) · 물후(物候) · 술후(術候)의 삼후론(三候論)적 구성

이와 같이 「위선지」는 형식적으로 세시점후, 천문점후, 풍우점후, 물상점후, 술수점후의 다섯 종류로 기상점후론을 펼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각각을 약칭하여 세후(歲候), 천후(天候), 풍후(風候), 물후(物候), 술후(術候)로 부르고자 한다. 이들 갈래가 전통시대 점후론을 개략적으로 대별한다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체제는 서술의 편제를 위해 편의상 분류되는 면이 있어 내용상 들어가면 서로 복합적으로 혼합된다. 예컨대 <12월점> 중 정월점에는 음력 날짜에 따른 점후, 초하루에 안개가 낄 경우의 점후, 정월에 무지개가 뜨는 경우의 점후 등 나머지 물후론이 모두 나열되어 있다. 또 <점일>에서 일식 자체가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식이 4월에 있으면 천하에 가뭄이 든다는 식으로 시기에 따른 천변점후를 논하고 있으며, <점풍>의 경우도 바람 자체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 다른 점후를 논하고 있다. 이렇게 세시점후와 천문점후 및 기상점후들은 모두 시기적 계기에 의한 점후를 다룬다는 점에서 광의의 시후론(時候論)으로 포괄할 수 있다.

이에 전통시대 기상기후의 점후론을 내용상 분류하면, 시후와 물후 및 술후의 세 갈래 삼후론(三候論)으로 집약할 수 있다.

천문 · 기상류, 지리와 식물류, 동물류, 절후류 · 曆占, 육감류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첫째, 시후류(時候類)는 월령(12월별)과 시령(계절별)에 따른 세시의 시후가 있고, 천공(天空)에 수놓인 일월성신을 지상의 시간과 방위로 연결하여 기후기상 변화를 논하는 천후가 있으며, 천공이 아니라 현대식으로 대기층과 지표면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상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풍운뇌우의 기상 현상들을 논하는 풍후(기상점후)가 있다. 여기 시후 문제는 절후법의 성립과 관련하여 다시 상술한다.

둘째, 물후류(物候類)는 초가집에 비가 오래 내려 버섯이 자라는 것을 보고 점후를 논하는 등 생활공간의 주변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물적 소재를 갖고 기상기후를 논하는 것들인데, 자연물의 소재에 따라 초목류·곡식류·동물류(금수류)·충어류·산수류 등으로 나뉜다. 예컨대, 까치가 일찍 지저귀면 맑은 날이 되고 이를 마른 까치라 하며, 까치가 구부리고 울면 날이 흐리고 고개 들고 울면 맑다 하고, 바다제비가 무리를 이루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며, 제비가 둥지 아래로 떨어지면 반드시 장맛비가 내린다는 등 자연의 물상 관찰에 따른 경험적 지식을 매우 다양하게 망라하고 있다. 현대 기상학처럼 관측기기가 발달하지 않았던 전근대사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기상예측 작업이라 할 것이다.

셋째, 술후류(術候類)는 서유구가 〈점역일〉 및 〈점운기〉를 표제어로 내세운 바와 같이 간지역일과 역년운기(曆年運氣)에 따라 기상기후의 변동이나 1년 농사의 풍흉을 논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역일점후’라 이를 만하고, 후자는 ‘운기점후’라 칭할 수 있다.

전자의 역일점후는 예컨대, 1년 열두 달의 초하루 간지에 갑일이 세 번 들면 삼복날 무덥다 하고, 경신일이 맑으면 갑자일에 반드시 맑고, 갑자일에 비가 내리면 병인일에 비가 그친다 하는 따위이다. 이와 같은 술후류는 자연경험적이 아니라 주술적 관념론이 지배적이다. 나름의 인과관계로 기상기후 변화를 설명하지만 그 인과론을 경험과학적으로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역일에 따른 술후 양상도 입춘, 소한 등 24절기일에 따른 ‘절기역일 점후류’가 있고, 어떤 날의 간지 조합에 따라 기상 변화를 말하는 ‘간지역일 점후류’가 있으며, 명리학적 연월일의 간지관계에 따라 길일 내지 흉일이라 보는 ‘길흉역일 점후류’가 있다. 또한 양의 날인 정월 4일이 맑으면 봄이 따뜻하다 하는 등 간지와 무관하게 단지 음력 날짜에 따라 기상

변화를 논하는 ‘음력역일 점후류’가 있고, 입춘날 바람이 서북방에서 불면 서리가 갑작스레 내려 곡식 값이 귀해지고 북방에서 불면 겨울에 큰 한파가 닥친다는 등 ‘방위 점후류’가 있으며, 기문둔갑술이나 점성법에 기대어 천덕합일(天德合日), 월덕합일(月德合日) 등을 논하는 ‘점성역일 점후류’ 등이 있다.

다음 운기점후는 매년을 주도하는 오운(五運)과 육기(六氣)의 조합에 따라 1년 기후 변동이 달라진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적합한 농사짓기와 이상기후 내지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법이다. 예컨대, 태과불급이 없는 심평(審平)의 기년(紀年)인 을축·을미년은 순화(順化)의 해이며, 이해 춘분 전 60일간은 꺾음(厥陰)이 주도하는 때여서 큰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비에서 모충(毛蟲)이 생기고, 춘분 후 60일은 소음(少陰)이 주도하는 때여서 가뭄과 더위가 있으며, 하지 전후 각 30일간은 뇌우와 번개, 우박이 내린다는 등이다. 이후 추분 전 60일간, 추분 후 60일간, 동지 전후 60일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1년을 60일씩 6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의 기후 특성을 논하는 방식이며, 60갑자 중 2개의 해가 같은 운기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30년 주기마다 동일한 기후 변화를 논하게 된다.

전통시대로 보자면 비교적 장기적인 기후예측 논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운기점후론은 『황제내경』의 오운육기론에 기반하여 자연기상으로 확대한 논법이다. 여기에는 인체의 변화가 자연의 외기(外氣) 변화에 상응한다는 의료기상학(醫療氣象學)¹¹⁾적 관점이 깔려 있는 까닭에, 기상의 변화가 각종 자연물에 변화를 일으키듯이 인체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연동된다는 것이다.

4. 『증보산림경제』의 삼후론 갈래

이상과 같이 「위선지」에 수록된 서유구의 점후론은 시후와 물후와 술후의 세 종류가 복합되어 있다. 이 중 현대에 와서 술후류는 사실상 기상과학적 의미를 잃어버린 영역이라 할 수 있지만, 전통시대에 이 분야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조선조 농서류 문헌을

11) 謝世俊, 『中國古代氣象史稿』(重慶出版社, 1992), <『內經』의 의료기상이론체계>, 425-447쪽.

보면 잘 알 수 있다.

흔히 우리가 전통 농서로 높이 평가하는 『산림경제』에도 각종 술수류 논법이 가득하다.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의 『산림경제』는 후일 약 50년 뒤 유중림(柳重臨, 1705-1771)이 『증보산림경제』(1766년, 12책 16권)로 펴내어 유통되었다. 이 중 권1 <복거편(卜居篇)>에서 나무 베기 좋은 날에 기사일·경오일·신미일 등 각종 간지일과 천덕일·월덕일 등 각종 술수일이 제시되어 있고, 권5 <목양편(牧養篇)> 중 소를 들여오기 좋은 길일로 병인일·임인일·을사일 등을 제시하고 있다. 권15 <전가점후편(田家占候篇)>에도 갑자일에 오는 비는 병인일에 그치고, 정월 8일에 구름이 달을 가리면 봄비가 많고, 갑인일과 을묘일이 맑으면 45일 동안 날씨가 맑고 비가 오면 45일간 진흙탕물이 된다고 한다. 역시 술수적 점후 내용이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물론 종합적으로 보자면, 『증보산림경제』에는 술후류 외에 물후류와 시후류가 동시에 수록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상예후에 관한 부분은 7책 권15에서 <증보사시찬요>와 <전가점후> 및 <선택>의 세 편목으로 구성하였다. <선택>편은 점후뿐만 아니라 우물 파기 좋은 날, 이사하기 좋은 날 등 일상생활 속에 행하는 여러 방면에 대해 각종 술수적 길흉법을 모아둔 곳이다.

<증보사시찬요>¹²⁾편은 12월별로 절후법을 제시하고, 농사일과 집안 일 및 풍속과 금기를 수록하였으며, 점후와 관련하여서는 <풍우예측(占風雨)>과 <세험(歲驗)>이란 항목을 설정하여 논하고 있다.¹³⁾ 정월의 풍우점 항목을 보면, 8일에 삼성(參星, 오리온자리) 별자리를 보지 못하면 보름날에 비가 오고, 보름날에 바람이 불면 한식 때 반드시 비가 온다 하였으며,

12) 편명 자체가 『사시찬요(四時纂要)』를 류중림이 증보한 것임을 보이고 있는데, 홍만선의 『산림경제』에는 『사시찬요』 내용이 대폭 인용 수록되어 있다. 이 『사시찬요』(996)는 당말오대 韓鄂(한악)이 4계 12월의 점후와 도불적 기양, 금기, 농업생산, 의약위생, 기물 상업 등으로 구성된 농서로 보이며, 명나라 이후 중국에서는 실전되었다가 조선 선조 23년(1590) 重刻本이 일본으로 전해졌고 이것이 1960년 일본에서 발굴되어 1961년 일본 山本書店에서 영인출판되었으며, 이를 중국에서 1981년 繆啟愉(무계유)가 校釋하여 『四時纂要校釋』(農業出版社, 1981)으로 출판하였다. 이상과 달리 류중림이 참조한 『사시찬요』는 세조의 명으로 姜希孟(1424-1483)이 편찬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는데(김민희·구자옥·노경희·이상영, 「고농서에 나타난 관천망기의 지혜」, 『농업사연구』 제8권 3호, 한국농업사학회, 2009. 12, 98쪽), 아마도 이는 세조가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사시찬요』·『잠서주해』·『양우법초』 등의 농서 간행을 강희맹에게 담당케 한 것이 와전된 것이 아닐까 한다.

13) 농업진흥청, 『증보산림경제』 3책, 고농서국역총서 6(2004), 180쪽.

세험 항목에서 설날 아침에 입춘이 들면 대풍이고, 이날 아침에 눈이 많이 오면 그해에 가뭄이 들고, 보름날 밤에 비가 오지 않으면 봄가뭄이 많이 든다 하였다.

〈전가점험〉편은 농가에서 활용하거나 징험한 각종 물후와 시후와 술후를 수록하고 있으며(표2), 『임원경제지』 「위선지」의 권2, 권4 편목과 유사하다. 기상 현상에 관한 항목으로 일·월·성·풍·우·운·하(霞)·홍(虹)·뢰(雷)·전(電)·상(霜)·설(雪)·빙(氷)·무(霧)·기후(氣候)의 15항목이 있는데, 경험적이고 대기 현상에 대한 관찰 위주여서 주목된다. 「위선지」가 10월에 일식이 있으면 겨울이 가물고, 갑자일에 일식이 있으면 동쪽에 큰 수재가 난다와 같이 일식, 객성 등 각종 천변을 포함하여 논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 〈전가점험〉의 논일(論日)은 해무리가 있으면 비가 온다, 해가 구름 장막 속에 있으면 날씨가 맑다와 같이 대기 현상 중심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논월(論月)에서도 달무리가 있으면 바람이 분다, 달빛이 붉은색이면 가문다 등으로 역시 대기 현상을 논하고 있다. 논성(論星) 역시 비가 온 뒤 별이 한두 개만 보이면 이날 밤에 반드시 맑다는 식이다. 반면에 「위선지」의 〈점성(占星)〉에는 유성(流星)이 천일성(天一星)을 스치면 겨울에 수재가 나고 여름이 가문다와 같이 천문관측적인 재변론이 많다.

『임원경제지』(1824)가 『증보산림경제』(1766)보다 60년가량 늦게 작성되었으니 이를 참조하였을 범도 한데, 「위선지」에는 『산림경제』 혹은 『증보산림경제』를 인용서목으로 제시한 바가 없다.¹⁴⁾ 이 때문에 〈전가점험〉편에 개진된 경험적 기상지식이 「위선지」에 실리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등불로 기상예후하는 설명에서, 「위선지」가 등불이 오래 꺼지지 않으면 다음날이 맑아진다, 등잔에 불을 당길 때 소리가 나면 큰 바람이 불 징후다와 같이 두셋 조목임에 비해, 〈전가점험〉은 등화점첨우법(燈花占請雨法, 등불로 날씨 예점하는 법) 항목을 두어 검은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 다음날 비가 오고, 등불의 불꽃이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맑다와 같이

14) 『임원십육지』의 농학 분야 6개 지에 활용된 인용문헌 빈도 조사에서 인용 횟수가 100회 이상인 것은 『群芳譜』(667회), 『王禎農書』(299회), 『農政全書』(296회), 『本草綱目』(268회), 『齊民要術』(264회), 『增補山林經濟』(251회), 『蘭湖漁牧志』(250회), 『杏菴志』(213회), 『和漢三才圖會』(137회), 『薄州牧丹史』(107회) 등 10종으로 조사된 바 있다(노기춘, 「임원십육지 인용문헌 분석고(1): 농학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 2006. 3, 375-403쪽). 여기에 『증보산림경제』가 251회 인용된 반면에, 「위선지」에는 하나도 인용되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표2-『증보산림경제』 점후편의 편목

	增補四時 纂要	正月, 二月, 三月, 四月, 五月, 六月, 七月, 八月, 九月, 十一月, 十二月
卷15	田家占候	論日, 論月, 論星, 論風, 論雨, 論雲, 論霞, 論虹, 論雷, 論電, 論霜, 論雪, 論冰, 論霧, 論氣候, 論朔日, 論旬中剋應, 論甲子, 論壬子, 論甲申, 論戊申, 論五卯, 論甲戌庚必變, 論山, 論地, 論水, 論草, 論花, 論木, 論禽, 論獸, 論龍, 論魚, 論蛇蟲, 燒燈草占請雨法, 燈花占請雨法, 炭土占請雨法, 榆葉占風雨法, 鐘鼓占請雨法, 金石占請雨法, 預知風暴法, 六十甲子日陰晴占法, 一年內風雨占, 月內晴雨占, 二十八宿定風雨陰晴訣, 定寅時歌訣, 定太陽出沒歌訣, 定太陰出沒歌訣, 定太陽出時歌訣, 猫眼定時辰歌訣, 占鵲烏鴉鳴法, 占燈花法, 占耳鳴法, 占嚏噴法, 占釜鳴法, 噴水解夢法, 鎮諸怪法, 鎮諸怪符
	選擇	彭祖百忌日, 建除十二神吉凶, 二十八宿吉凶, 楊公忌日, 每月忌日, 大儉修日, 儉修忌方, 天寶儉修日方, 儉時, 寒食清明日, 歲官交承 等等

더 많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점등화법(占燈花法, 불꽃으로 점치기) 항목을 따로 설정하여 불꽃 내지 불뚱으로 길흉을 논하는 내용을 대폭 수록하고 있다. 그 외에도 등초 태워 날씨 점치기(燒燈草占請雨法), 솥으로 날씨 점치기(炭土占請雨法), 느릅나무 잎으로 비바람 점치기(榆葉占風雨法), 이명으로 점치기(占耳鳴法), 재채기로 점치기(占嚏噴法), 술울음으로 점치기(占釜鳴法) 등 새로운 속언들이 많이 수록된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증보산림경제』가 <증보사시찬요>편을 내세워 12월 점후를 수록하고 있듯이 『사시찬요』를 많이 활용한 것에 비해, 「위선지」에는 『사시찬요』가 한 곳에서만 인용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증보사시찬요>편의 <세험>에는 설날 아침에 기후가 온화하면 모든 과일 농사가 잘된다 등과 같이 기상 문제를 농사에 연결 지은 조목이 많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위선지」의 점후론이 좀 더 매뉴얼적인 면이 있어 보인다. 이런 문제는 추후 좀 더 자세한 비교 분석을 통해 조망할 필요성이 있다. 요컨대, 『증보산림경제』 역시 넓게 보아 시후, 물후, 술후라는 세 분야 논리를 적절히 동원하고 있는 것이어서, 전통시대 기상점후론의 삼후론 구조를 잘 들여다볼 수 있다 하겠다.¹⁵⁾

15) 최덕경, 「17-18세기 조선 농서에 나타난 점후의 성격: 水稻作의 사례를 중심으로」(『지역과 역사』 16호, 부경역사연구소, 2005. 6)에서 점후가 언급된 조선시대 농서로 『穡經』(1676), 『穡經增集』(1689경), 『山林經濟』(1715경), 『증보산림경제』(1766), 『攷事新書』(1771), 『課農小抄』(1799), 『竹僑便覽』(1849) 등을 언급하고 있어 추후 연구에 참조가 된다.

III. 시후류 토대로서 24절기 72후법의 성립 고찰

1. 월령사상과 시후론의 성립

세시점후의 시후류(時候類)는 4계절 변화에 따른 계후(季候)체제¹⁶⁾와 1년 12월의 월별 변화에 따른 월후(月候)체제를 따르는데, 보통 시령(時令) 혹은 월령(月令)이라 혼용하여 부르는 갈래이다. 월령론은 계절 변화에 맞게 정부의 시행령이 알맞게 발령되어야 백성들이 곤궁에 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고대 군주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런 월령사상은 천인상관론(天人相關論)이 팽배하던 중국의 전국시대에 발달하였으며, 하늘의 뜻인 천명(天命)을 군주가 받아 천자(天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임을 설교하려는 목적에서 입론된 것의 하나이다.

진시황의 전국통일에 대일통(大一統)과 제왕학(帝王學)의 이념 근거를 제공하였던 여불위(呂不韋)의 『여씨춘추』(BC 239)에서 처음으로 월령사상이 체계화된 것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말해주며, 이 『여씨춘추』의 「십이기(十二紀)」와 동일한 내용이 현대인의 가탁으로 보는 『예기』 「월령」 [후한의 정현(鄭玄)은 여불위 소찬(所撰)으로 간주로 수록되면서 이후로는 『예기』의 권위를 따라 널리 전파되기에 이른다. 남북조와 당나라는 후한 경학자인 정현(127-200)의 이론에 의거하여 군주가 매달 하늘로부터 월령을 받아 내리는 의례를 청삭례(聽朔禮)로 발달시켰는데, 군주가 월령을 청삭하고 다시 이를 백성들에 반포하는 곳이 다른 아닌 포정(布政)의 전당인 명당(明堂)에서라고 이론화함에 따라 청삭례는 명당례와 결합되었고, 이에 따라 명당 청삭례는 천명에 따라 월령을 반포하는 우주론적 의례이자 천인(天人)이 교통하는 신비로운 성소(聖所)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매월 군왕이 명당에 가서 청삭하고 반포한다는 것이 자못 번거로운 일이어서 명분론적으로만 크게 개진된 감이 있으며, 나중에는 역법(曆法)을 반포하는 명당 반포례에서 월령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집약하였다. 특히 중국 황제가 매년 역서(曆書)를 이웃 나라에 반포하고, 왕조가

16) 時候란 말이 넓게는 계절 변화를 반영하는 전체의 점후를 일컫고, 좁게는 사계절 변화로 국한하여 지칭한다. 아주 넓게는 천문점후나 물상점후까지도 계절 변화에 따라 논해지므로 시후류로 포괄할 수가 있다. 이런 용어의 혼선을 줄이려면 사계절 점후는 季候라는 말로 조어하여 구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바뀔 때마다 개력(改曆) 내지 개삭(改朔)을 행하여 천명의 정밀함을 선언하는 신력(新曆) 반포례는 진한시대 이래 청나라에까지 2,000년간 지속된 동아시아적 지배질서의 일환이기도 하였다.¹⁷⁾

그런데 12월의 월령은 실상 춘하추동이라는 계절의 변화를 기초로 삼는 체계이므로 시령(時令)이라는 이름으로도 널리 불렸다. 이 시령의 시(時)는 시간이라는 의미보다 계절이란 뜻을 가진다. 전통용어로 사계절은 사계(四季)보다 사시(四時)로 일컫는다. 『여씨춘추』 「십이기」에서 펼친 월령체계를 다시 살펴보면, 맹춘, 중춘, 계춘이라 하는 맹중계(孟仲季)의 석 달로 말하고 있어 춘하추동 사시에 따른 시령의 골격을 지닌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이미 제나라 직하학자 추연(鄒衍)의 오행사상이 발달하던 때여서 1년 12월을 오행의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 변화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되면 계절이 다섯 계절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제5의 계절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인 계하(季夏)에서 찾았고, 이에 따라 춘하추동과 계하를 합한 오시(五時)를 시령의 기초로 입론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런 월령과 오행사상의 결합 위에 다시 전한대에는 『주역』의 역리(易理)를 접목하여 이른바 괘기상수학(卦氣象數學)이라 부르는 역후법(易候法), 곧 역리점후(易理占候)가 크게 흥기하였다. 이것은 전국을 통일한 진한대가 비약적인 천문학의 성취를 이루었으며, 그에 따라 절기법과 시후법이 확립되고, 더불어 중국 최초의 반포력으로 태초력(太初曆)이라는 역법이 정비되어 비로소 자연계의 순환 질서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던 시대적 기반 위에 개진된 이론이기도 하다. 괘기론은 1년 24절기의 기(氣)를 팔괘 내지 주역 64괘의 괘상론(卦象論)으로 해석하는 이론을 말하며, 흔히 괘기상수학이라 이른다.¹⁸⁾ 괘기(卦氣)의 기는 절기의 기이다. 이런 괘기론에 따르자면 춘하는 양기가 주도하고 추동은 음기가 주도하는 시기인데 계하는 바로 양에서 음으로 질적인 변화를 도모하여야 하는 기후변곡의 시점이어서 매우 무더운 여름을 파생시키는 것이며, 이 여름의 강력한 화기(火氣)를 누르기 위하여 오행의 중심 기운인 토기(土氣)를 불러들여 작용시킨다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계하의 토용론(土用論)

17) 이상 월령과 청삭례 등에 대해서는 김일권, 『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예문서원, 2007) 참조.

18) 김일권, 『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2007), 〈절기 변화의 역학적 해석: 한대의 괘기론〉.

이다. 세시풍속에서 늦여름에 맞이하는 삼복(三伏)의 절차도 이 계하와 연관되어 있다.

전한대의 괘기론 중 조선시대에 더욱 확산되었던 이론으로 12벽괘설(辟卦說)이 있는데, 1년 열두 달을 음양소식(陰陽消息)으로 인식하여 매 달을 주재하는 12개의 특별한 괘효(卦爻)가 있다는 괘후론(卦候論)이다. 1년 중 가장 해가 짧은 동짓날은 이날로부터 양기가 생하므로 일양시생(一陽始生)의 괘상인 지뢰복괘(地雷復卦, ䷗)가 동지의 11월을 주재하며, 하지일은 반대로 일음시생(一陰始生)이어서 음기가 맨 아래에서 놓이는 천풍구괘(天風姤卦, ䷫)가 하지의 5월을 주재한다는 식이다.

이러한 역후론(易候論)은 역대 역사서의 「역지(曆志)」로도 편입되어 역법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현재로서는 북위의 역사를 기록한 『위서(魏書)』 「율력지(律曆志)」 상(上)에 처음으로 몇 가지 괘기역후법이 수록되어 있다. 곧, 북위 효명제 연간 공식 반포력인 정광력(正光曆, 523-565)의 <추사정괘술(推四正卦術)>에서 12벽괘설 외에 이분이지(二分二至)를 주재하는 사정괘설(四正卦說)을 설명하고 있는데, 동지는 감괘(坎卦)가 용사(用事)하는 날이고, 춘분은 진괘(震卦)의 용사일이며, 하지는 리괘(離卦)의 용사일이고, 추분은 태괘(兌卦)의 용사일이라 하고서, 각기 그 날짜를 구하는 추보법을 서술하고 있다. 이때 12벽괘는 천자에 비견되며, 4정괘는 방백(方伯)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서, 예컨대 구삼(九三, 爻)이 상구(上九)에 응하면 깨끗하고 온화한 양풍(陽風)이 불고, 구삼(九三)이 상육(上六)에 응하면 붉고 온기가 많은 음우(陰雨)가 내린다는 식이다.¹⁹⁾

2. 『회남자』의 절기법과 『일주서』 72후론의 전승

이상의 시령과 월령체계 위에 24절기에 따른 절후가 세워진다. 절기의

19) 推四正卦術曰：因冬至大小餘，即坎卦用事日；春分，即震卦用事日；夏至，即離卦用事日；秋分，即兌卦用事日。

求中孚卦：加冬至小餘五千五百三十，小分九，微分一，微分滿五從小分，小分滿氣法從小餘，小餘滿部法從大餘，命以紀，算外，即中孚卦用事日。其解加震，咸加離，賁加兌，亦如中孚加坎。……

四正爲方伯，中孚爲三公，復爲天子，屯爲諸侯，謙爲大夫，睽爲九卿，升還從三公，周而復始。九三應上九，清淨微溫陽風；九三應上六，絳赤決溫陰雨。六三應上六，白濁微寒陰雨；六三應上九，曲塵決寒陽風。諸卦上有陽爻者，陽風；上有陰爻者，陰雨。『魏書』 「律曆志」上，2678-2679쪽.

절(節)은 마디란 뜻이고 기(氣)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른 기운의 변화를 뜻하므로, 절기는 다시 말하면 태양이 지나가는 길 위에 수놓인 시간의 마디가 된다. 현대와 같은 24절기 명칭이 완비된 것은 기원전 2세기 전한대로 보고 있다.

전한대 회남왕 유안(劉安)이 편찬한 『회남자』(BC 139) 「천문훈」에서 처음으로 24절기의 완전한 명칭과 분법을 수록하였는데, 북두칠성의 두병(斗柄)에 따라 1년의 시간 마디를 24기로 구분하였으며, 그 “두병이 하루 1도씩 운행하여, 15일이면 일절(一節)이 되어 24시(時)의 변화를 일으킨다. 두병이 자(子)를 가리키면 동지이고, 황중률(黃鐘律)에 비견된다. 다시 15일을 더하면 소한이 되며 응중률(應鐘律)에 해당된다. ……”라 하였다. 곧, 15일 간격을 일절(一節), 곧 한 절기로 삼았으며, 동지 절기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15일씩 더하여 소한, 대한, 입춘, [·], 소설, 대설까지 분류한 것이다. 이를 현대천문학으로 말하면 태양의 길인 황도를 24마디로 등분한 뒤 황경 15도 간격을 한 마디로 삼고 각 마디에 적합한 지상의 기후에 따른 명칭을 붙인 것이 24절기 체제가 되는 것이다. 이 『회남자』의 24절기 체제와 명칭은 35년 뒤인 전한 무제 태초 원년(BC 104)에 중국 최초의 공식 반포력인 태초력에서 정식으로 채택한 이래 이후 모든 역법에 절기 천문학의 기준점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²⁰⁾

그런데 절후(節候)란 말은 절기에 따른 기후란 의미이지만, 24절기와 72후의 합칭어로 보는 편이 더 정합적이다. 24절기보다 더 세분된 태양의 시간 마디가 72후 체제이다. 72후는 매 절기를 다시 3등분하여 평균 5일마다 기후 변화를 논한 것으로, 황도상 태양이 황경 5도씩 진행할 때마다 하나씩의 후(候)로 매겨 구분한 절후법이다. 매 절기 중 첫 5일은 초후(初候), 다음은 차후(次候), 마지막 5일은 말후(末候)라 이름한다. 이에 매 절기에 삼후(三候)가 있고, 매월에는 2개의 절기가 있어 총 6개의 기후가 발생하며, 매월 6개씩 기후는 12달이면 72후가 된다(12월×6후=72후 혹은 24기×3후=72후). 이렇게 하여 1년에 72후가 발생하고 24절기가 있어 서로 결합하여서는 절후라 일컫는다. 절(節)은 시간의 마디이고 후(候)는 자연의 징후이다. 이 시간의 마디에 따라 자연의 징후를 매뉴얼화한 것이 각 역법에 실리는 72후표이며, 또는 간략하여

20) 김일권, 『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2007), 제3장 〈시간의 역사와 천문역법사상〉 참조.

기후표(氣候表)라 이른다. 예컨대, 정월 입춘절의 초후에는 동풍이 불고 얼음이 녹으며(東風解凍), 차후에는 동면하던 벌레가 깨어나기 시작하고(蟄蟲始振), 말후에는 물고기들이 얼음 위로 올라온다(魚上冰)는 식이다.²¹⁾

이렇게 매 시절에 따라 다양한 점후 내용을 채록하고 계통화를 시도한 것은 진한통일기 전후의 『여씨춘추』 「십이기」에서 처음 보이며²²⁾, 『예기』 「월령」과 『회남자』 「시칙훈」에도 거의 동일한 「십이기」 남본(藍本)이 수록되었다.²³⁾ 이들 「십이기」와 「월령」 및 「시칙훈」에는 후대에 정형화 되는 72후표만큼 절후가 엄선되지는 않았으며, 그렇지만 72후로 포괄될 수 있는 물후 내용은 거의 망라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회남자』 「천문훈」이 24절기 명칭과 체제를 완비한 것과 달리, 「시칙훈」은 춘분을 일야분(日夜分)이라 부르는 등 아직 절기 명칭을 제대로 수록하고 있지도 않아 양자의 편찬 주체가 같지 않음을 보여준다. 곧, 『회남자』가 『여씨춘추』 뒤 100년이 지난 시점에 편찬된 것인데도 「시칙훈」의 월령은 「십이기」의 것을 거의 그대로 수록한 정도인 것이다. 그에 비해 『회남자』 「천문훈」은 그 사이의 천문학적 성취를 반영하여 완비된 24절기 체제를 수립한 것이라 보인다. 이렇게 차이는 이유는 72후법과 24절기법이 동시에 발달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흐름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1) 김일권, 「각월령기후정표와 『침구요결』의 천지인물기후상응도」, 『장서각연보』 제5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3. 2).

22) 『呂氏春秋』(BC 239)는 1년 12월을 孟仲季의 四季로 가르고 각 달의 物候와 氣候를 정리한 「十二紀」를 수록하였는데, “孟春之月, 東風解凍, 蟄蟲始振, 魚上冰, 獺祭魚, 鴻雁來, [...], 以立春.”이라 하고, “仲春之月, 始雨水, 桃始華, 倉庚鳴, 鷹化爲鳩, 玄鳥至, [...] 日夜分.”이라 하는 등 72후법의 표현들을 수록하고 있다. 다만 아직 절기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산만한 면이 있지만, 12월별로 대체적인 기후 변화를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물후를 수록하고 있다.

23) 절기체제의 시작을 춘추시대 산둥 지역 齊나라에서 관찰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가장 이른 절기 방식이 춘추 5패 중 제1霸王로 꼽히는 제나라 환공의 재상 管仲(?-BC 645)이 지었다고 가탁한 『管子』 「幼官」편에 보이며, 여기에서는 후대의 것과 달리 매 12일마다 一술을 세우는 1년 30절기 체제를 선보였고, 「輕重」편에는 冬至, 春始(입춘), 春至(춘분), 夏始(입하), 夏至, 秋始(입추), 秋至(추분), 冬始(입동)의 8절기 방식을 세우고, 또 15일마다의 절기 마디를 언급하는 등 「幼官」편과는 또 다른 방식의 절기법을 제시하여 후대 24절기법 발달로 이어지는 초기 형태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 외 「四時」, 「五行」, 「牧民」, 「度地」 등에서 “춘3월에는 천지가 건조하며, 天氣가 하강하고 地氣가 상승한다”와 같이 여러 가지 기후와 물후가 산건되어 있어 기상에 관련한 점후법의 초기적 작품으로 보고 있다. 謝世俊, 『中國古代氣象史稿』(重慶出版社, 1992), 316-334쪽, 〈『管子』의 절기 계통과 기상지식〉.

태양의 일기 변화를 5일 단위로 세분화한 72후법이 후대의 것처럼 정형화된 모습은 잃어버린 주서란 뜻의 『일주서(逸周書)』 「시훈편(時訓篇)」에서 처음 보인다.²⁴⁾ 『일주서』는 공자가 『상서(尙書)』 「한대에 경의 위치로 인정받아 서경(書經)으로 불림 중 「주서(周書)」를 산정(刪定)한 뒤 남은 글이라고 보아 붙여진 이름이나, 현재는 전국 후기 내지 진한대 학자들이 주나라 역사서로 가탁한 책으로 보고 있으며, 수당 시기 이후로는 서진 태강(太康) 2년(281) 급군(汲郡, 현 하남성 급현(汲縣))에 소재한 전국 위(魏)나라 양왕총(襄王塚, 혹은 안리왕총(安釐王塚))이란 무덤에서 발굴된 죽간에서 나왔다 하여 『급총주서(汲塚周書)』로도 불려왔다.²⁵⁾ 『죽서기년(竹書紀年)』(13편)도 이 무덤에서 함께 발굴되었다.

이 『일주서』 중 제52편 「시훈해(時訓解)」에 72후법이 24절기의 순서를 따라 초후와 차후, 말후의 세 조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순서는 입춘부터이며, 후대의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입춘-경칩-우수-춘분……으로, 경칩과 우수 절기가 바뀌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이 우수가 경칩 앞으로 온 것은 전한 말에 와서이며, 이것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 생동한다는 경칩 절기를 2월 초순(양력 3월 5일경)으로 늦추어 계절과 자연 변화를 좀 더 긴밀히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후법(候法)의 내용은 주로 기상 변화와 관련된 기후류(氣候類)와 동식물의 변화로 설명한 물후류(物候類)로 구성되어 있다. 『여씨춘추』 「십이기」와 『회남자』 「시칙훈」에서 산만하게 수록되어 있던 여러 시후법을 매월과 매 절기에 적합한 것으로 선택 정리하여 일률적인 24절기 72후법으로 체계화하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주서』 「시훈」 편은 『회남자』보다 늦은 시기의 저작으로 추정된다.

이후 72후법은 역서(曆書)로도 편입되어 역법의 중요한 요소로 정착되는데, 현재 보이는 바로는 『위서』 「율력지」에서부터 수록되어 있다.²⁶⁾

24) 謝世俊, 『中國古代氣象史稿』(1992), 〈『逸周書』의 절기 계통과 그 실천〉, 447-451쪽.

25) 현재 전하는 『일주서』가 10권 71편 형식이나(序 1편 포함), 11편에는 본문이 없고 편명만 기재되어 있어 10권 60편본(序 1편 포함)이 된다. 이 중 42편은 晉代 오경박사 孔晁가 주석을 가한 것이며(편명에 解를 붙임), 나머지는 이후 증보된 것이다. 『한서』 「예문지」에는 71편으로 수록되었고, 진대 공조가 주석을 달 때는 45편이 남았으며, 『송사』 「예문지」는 10권 60편본이어서 이것을 현재의 今文本으로 보고 있다. 후한대 허신의 『설문해자』에서 처음으로 『일주서』란 이름으로 불렸다. 淸 周右曾, 『逸周書集訓校釋』(臺灣 商務本)(世界書局, 2009).

26) 최덕경, 「중국 고대의 물후와 농시 예고」(2002)에서 이런 문제를 상술하고 있다.

북위 반포력 정광력의 제6 오행몰멸역괘기후상삭술(五行沒滅易卦氣候上朔術) 중에 <추칠십이후술(推七十二候術)>로 수록하였고, 기산점은 동지로부터 시작한다.²⁷⁾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사』 「역지」에 수록된 선명력(宣明曆)에서 『일주서』와 동일한 72후법이 <선명력 기후표>로 실려 있으며, 고려 말 <수시력 기후표>에서도 글자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²⁸⁾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이 역법상의 기후표를 그대로 전승하여 사용하였다. 한중연 장서각에 『각월령기후징표(各月令氣候徵表)』라는 두루마리 형태의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수시력의 기후표와 같은 72후법임을 알 수 있어, 전통시대에 어떤 방식의 기후법을 준거로 삼았는지를 짐작하게 한다.²⁹⁾

3. 고려 선명력의 72후론과 물후 갈래

고려 <선명력 기후표>의 72후에 등장하는 동식물의 물후류를 검토해보면, 벌레나 새나 두더지 등 자연의 동물류가 일으키는 징후를 갖고 기후 지표로 삼은 경우가 가장 많다. 정월 입춘의 차후(칩충)·말후(물고기)·우수 초후(수달)·차후(기러기), 2월 경칩의 차후(피꼬리)·말후(비둘기)·춘분의 초후(제비), 3월 청명의 차후(두더지), 곡우의 차후(비둘기)·말후(대승새), 4월 입하의 초후(청개구리)·차후(지렁이), 5월 망종의 초후(버마제비)·차후(왜가리)·말후(반설조), 하지의 초후(사슴)·차후(매미), 6월 소서의 차후(귀뚜라미)·말후(매), 대서의 초후(반딧불), 7월 입추의 말후(쓰르라미), 처서의 초후(매), 8월 백로의 초후(기러기)·차후(제비)·말후(뭇새), 추분의 차후(칩충), 9월 한로의 초후(기러기)·

27) 『위서』 정광력은 “범이 교미하기 시작하고(虎始交), 운초(유채꽃)가 나기 시작하고(芸始生), 도꼬마리가 빠져나온다(荔挺出)”는 3후를 동지의 시후로 기록하였는데(『위서』 「율력지」 상, 2679-2680쪽), 앞서 보았던 『일주서』 「시훈」이 “지렁이가 서로 얽히고(蚯蚓結), 고라니 뿔이 떨어지고(麋角解), 샘물이 언다(水泉動. 動=凍)”는 시후를 동지의 3후로 제시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대신에 「시훈」의 동지 3후가 정광력 소한 3후로 들어가 있어 한 절기가량의 편차를 보인다. 그러나 당나라 후기 선명력의 72후법은 『일주서』 「시훈」과 동일하다.

28) 宣明曆(807-821)은 唐末 徐昂이 편찬한 우수한 역법으로 신라 말에 도입되어 고려시대 역법의 기초가 되었으며, 授時曆(1281-1367)은 원나라 천문학자 郭守敬이 이슬람 천문학을 반영하여 만든 중국 역대 최고의 역법으로 꼽히는 것이다. 원간섭기로 들어간 충렬왕 시기에 수시력이 고려로 도입되었다. 김일권, 『국역고려사 14 역지 역주』(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b) 해제 참조.

29) 김일권, 「각월령기후징표와 『침구요결』의 천지인물기후상응도」(2013).

차후(참새), 상강의 초후(송냥이)·말후(칩충), 10월 입동의 말후(꿩), 11월 대설의 초후(왜가리), 차후(범), 동지의 초후(지렁이), 차후(고라니), 12월 소한의 초후(기러기), 차후(까치)·말후(야계), 대한의 초후(닭)·차후(맹금)의 40종류에 달한다.

다음은 식물류이며, 정월 우수의 말후(초목 새싹), 2월 경칩의 초후(복숭아꽃), 3월 청명의 초후(오동나무꽃), 곡우의 초후(부평초), 4월 입하의 말후(쥐참외), 소만의 초후(씀바귀)·차후(미초), 5월 하지의 말후(반하초), 7월 처서의 말후(곡식), 9월 한로의 말후(국화꽃), 상강의 차후(초목 잎), 11월 대설의 말후(여정초)의 12종류가 포괄된다.

나머지는 날씨 변화나 풍우점후에 관한 소위 풍후류 지표들인데, 정월 입춘의 초후(동풍과 해동), 2월 춘분의 차후(우레 소리)·말후(번개), 3월 청명의 말후(무지개 출현), 4월 소만의 말후(작은 더위), 6월 소서의 초후(온풍), 대서의 차후(습기와 무더위)·말후(큰비), 7월 입추의 초후(서늘한 바람)·차후(흰 이슬), 처서의 차후(천지숙살 기운), 8월 추분의 초후(우레 소멸)·말후(물의 고갈), 10월 입동의 초후(물의 결빙)·차후(땅의 결빙), 소설의 초후(무지개 소멸)·차후(천지기운 승강)·말후(천지기운 폐색), 11월 동지의 말후(샘물 결빙), 12월 대한의 말후(못물의 두터운 결빙)의 20종류가 있다.³⁰⁾

이처럼 자연에서 관찰되는 동식물의 물상 변화를 기후 징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72후론은 물후학의 전형이 되어왔다. 여기에 묘사된 물후는 매우 오랜 고대부터 생활의 주변에서 만나는 경험적 관찰지식의 집성 결과라 할 것이다. 24절기의 명칭법도 태양의 일기 변화에 따른 기후학과 물상 변화에 따른 물후학의 양 방향을 기초로 삼는다는 점에서 72후와 마찬가지로 전통시대 물후학과 기후학의 체계화를 담은 지식체계이다.

IV. 점후론의 자료와 「위선지」의 천문기상점후서 구조

1. 기상전문가 그룹과 직제

고대에 기상기후를 관찰하고 예측하는 전문가를 다양한 이름으로

30) 김일권, 「각월령기후징표와 『침구요결』의 천지인물기후상응도」(2013) 재론.

불렀는데, 진한대에 주로 등장하는 명칭은 망기가(望氣家), 후성자(候星者), 후기가(候氣家), 점세가(占歲家) 등이다. 진시황 35년(212)에 방사(方士) 후생(侯生)과 노생(盧生)이 선약(仙藥)을 찾지 못한 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치면서 “진나라 법에 두 가지 방술을 겸할 수 없고 방술이 영험하지 않으면 즉시 처형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성상(星象)과 운기(雲氣)를 측후하는 양사(良士)가 300명이나 있는데도 모두들 두려워 황제의 과오를 감히 직언하지 못한다”³¹⁾고 하였다. 여기에서 성상과 운기를 관측하는 후성 내지 망기 전문가 그룹이 매우 많았음을 시사하며, 방사가 이런 역할을 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³²⁾ 이 시기의 방사, 망기가, 후성자 등은 천문과 역법에도 함께 능한 것으로 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사마천(司馬遷, BC 145-87경)은 『사기』(BC 91) 「천관서(天官書)」 말미에서 한나라의 천문점후가를 총평하여 말하면서 “한나라 건국 이래 천수(天數)에 밝은 세 사람이 있는데, 성력(星曆)은 당도(唐都)이고, 망기(望氣)는 왕삭(王朔)이며, 점세(占歲)는 위선(魏鮮)”³³⁾이라고 정리하였다. 곧, 천체관측에는 당도, 운기관측에는 왕삭, 매년점후에는 위선을 대표자로 내세운 것이다. 이때 위선이 행하였던 점후법 중 대표적이라 생각된 ‘팔풍후세론(八風候歲論)’을 자세히 수록하였다. 위선의 팔풍후세론은 납명일(臘明日, 납일 다음날)과 정단일(正旦日, 설날)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날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세기로 얼마큼 지속하는가를 관찰하여, 1년 농사의 풍흉과 수한과 병란 등을 미리 점후하였다는 이론이다. 이 내용은 「위선지」 권1 〈원조일후(元朝日候)〉 항목에도 소개되어 있다. 서유구는 『임원경제지』를 편찬하면서 점후에 관련된 지명(地名)을 지을 때 서문인 〈위선지인(魏鮮志引)〉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사기』 「천관서」에서 전한 시기 위선을 점후가의 대표자로 내세운 것에 착안하여 「위선지(魏鮮志)」라 편명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³⁴⁾

그러나 역대 역사서 편찬 흐름을 보면, 기상점후론은 천문학과 역법학 및 오행지학에 묻혀서 독립된 편장으로 성립하지는 못하였다. 하늘에

31) “秦法，不得兼方，不驗，輒賜死。然候星氣者至三百人，皆良士，畏忌諱諛，不敢端言其過。” 『사기』 「진시황본기」 제6, 258쪽.

32) 김일권, 「진한대 방사의 성격과 방선도 및 황로학의 관계 고찰」, 『동국사학』 44호(동국사학회, 2008. 6), 73-103쪽.

33) “星則唐都，氣則王朔，占歲則魏鮮。” 『사기』 「천관서」 제5, 1349쪽.

34) 김일권 역주, 「임원경제지 위선지 해제」(2011), 569쪽.

관련된 「천문지」, 「역지」 및 「오행지」 속에 기상점후 관련 자료가 흩어져 수록된 것이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아직 기상론 분야가 천변론 속에서 분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하늘에 떠 있는 천상(天象)으로 대표적인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천문학적 문제를 논하면서 거기에 덧붙여 햇무리(日暈), 달무리(月暈), 일이(日珥), 월이(月珥), 무지개 등을 논하였고, 역법학을 논하면서 절후의 변화를 덧붙여 설명하였던 것이다. 「오행지」를 통한 오행지학은 재이론(災異論) 위주여서 자연의 이상재해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기상예측이나 물후학과 같은 예후론에 관한 논의는 수록하지 않았다. 다만 「오행지」는 자연재해를 기록한 기록물 성격을 겸하는 것이어서 『고려사』 「오행지」의 경우 고려시대의 자연재해인 홍수, 가뭄, 한파, 대설, 우박 등 여러 기상 현상을 수록하고 있어 전통시대 기상학의 주요한 자료가 된다.³⁵⁾

역대 관직제도의 변천을 보면 천문과 기상을 포괄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데, 고려조를 거쳐 선초까지 관련 직제였던 서운관(書雲觀)은 기상 현상인 구름을 명칭으로 삼았으며³⁶⁾, 세조 12년(1466) 1월 관제 개정 시 개칭된 관상감(觀象監)은 천상(天象)과 기상(氣象)을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관상(觀象)을 명칭으로 내세우고 있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조). 중국이 진한대에서 수당 초까지는 태사령(太史令), 태사국(太史局) 내지 태사감(太史監)으로 불렀다가 당 말에 와서 사천대(司天臺)로 개칭하고, 오대 송 초에 사천감(司天監)으로 개칭하였으며, 명 초에는 다시 흡천감(欽天監)으로 개칭하여 청나라도 이를 사용하는 등 천(天)을 내세운 것과 다소 대조적이다.

조선 태조 즉위년의 서운관 직제에서 정(正, 종3품) 2명, 부정(副正, 종4품) 2명 등 외에 장루(掌漏, 종7품) 4명, 시일(視日, 정8품) 4명, 사력(司曆, 종8품) 4명, 감후(監候, 종9품) 4명, 사진(司辰, 종9품) 4명을 두고 있다. 『대전회통』의 관상감 직제에는 영의정이 영사(領事, 정1품)를 예겸하고, 관상감 제조(提調, 종1품) 2명 외에 종6품의 천문학교수, 지리학교수, 명과학교수가 있고, 또 삼력관(三曆官) 35명, 추주관(推籌官) 10명,

35) 김일권, 『고려사의 자연학과 오행지 역주』(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a).

36) 『書雲觀志』에서 고려시대 書雲觀이란 이름은 『춘추좌씨전』에서 “二分二至가 열리고 단합에는 반드시 雲物을 기록한다”는 고사에 근거하여 붙인 것임을 밝히고 있다(“左傳云, 分至啓閉, 必書雲物. 故名書雲.” 卷之一). 정연탁 역, 『국역서운관지』(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제1권 관직편 참조.

금루관(禁漏官) 30명 등을 두고 있다. 『서운관지(書雲觀志)』 권1 관직편에서 “천문, 지리, 역수(曆數), 점주(占籌), 측후(測候), 각루(刻漏)”의 6사를 주요 업무로 두고 있듯이, 관상감은 천문과 측후를 함께 운영하는 기구였다.

2. 중국 류서류(類書類) 중의 기상점후서 자료

한편 각종 류서류 문헌의 편성을 보면 기상 현상들은 천부(天部) 혹은 천문류 속에 편제되어 있다. 류서류 문헌은 각종 문물전장제도 전반의 콘텐츠를 집약하는 백과전서적 작업물이어서 이를 통해 당대 사람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³⁷⁾

중국의 남북조를 통일하여 새로운 문물전장제도를 통합한 수당 시기 류서류 몇 종을 살펴보면, 먼저 수나라 비서랑(秘書郎)이었던 우세남(虞世南, 558-638)이 비서성(秘書省)의 후당(後堂)이었던 북당(北堂)을 따서 지은 『북당서초(北堂書鈔)』(160권, 19부 801類門)는 본격적인 류서류 편찬물로서 주목되는 책인데, 그중 「천부(天部)」(권제149-152)에서 천상의 종류를 25종이나 자세히 구분하고 있다. 천(天)·일(日)·구(晷)·월·성·한(漢, 은하수)·운(雲), 기(氣, 기체)·소(霄,天色)·하(霞, 노을)·무(霧)·매(霾, 雨土)·에(暄, 음산한 날씨)³⁸⁾·제(霽, 개이는 날씨)³⁹⁾·홍예(虹霓, 무지개)·풍(風)·우(雨)·설(雪)·상(霜)·노(露)·산(霰, 얼음눈)⁴⁰⁾·박(雹)·뇌(雷, 우레), 전(電, 번개), 벽력(霹靂, 벼락)⁴¹⁾의 25종을 수록하였

37) 김일권, 「조선시대 민속문화 관련 류서류 편찬물 현황과 특성」, 『역사민속학』 제32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0. 3), 165-193쪽.

38) 暄(에)는 하루 종일 바람 불어 음산한 날씨 혹은 어두우면서 바람 부는 날씨를 뜻한다. (暄篇十三 終風且暄, 陰而風暄.)

39) 霽(제)는 비가 그치는 것을 별도의 기상 현상으로 본 것이다. 비가 그쳐 날이 개면 清明하고 開明하여지니 기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霽篇十四 濟謂之霽, 雨止爲霽. 喜霽, 悅晴, 清明, 開明.)

40) 우세남은 霰을 氷雪이 서로 맞쳐져 별처럼 흩어져 내리는 것이라 하였고, 陰氣를 오로지 하므로 먼저 맞쳐진 뒤 분분히 날린다고 하였다. (霰篇二十一 氷雪相搏如星而散, 氷雪雜下故爲霰雪. 稷雪, 陰之專氣, 先集, 紛飛其無垠.)

41) 雷(우레)는 증기가 맺혀서 되거나 바람이 쌓여서 되며, 음양이 서로 다투고 때려서 생기며, 춘분 때는 소리를 발하고 추분에는 거두고, 땅에서 나와 하늘로 올리는 것이라 보았다. (雷篇二十三 結蒸成雷 積風成雷, 天地之鼓 人君之象, 天地解而雷作, 陰陽交爭爲雷, 陰陽相搏爲雷, 鼓之以雷, [...] 春分發聲秋分乃收, [...] 雷出地 雷動天.)

電(번개)은 급격한 양기에서 발생하고 열기가 흩어져 번개가 되며, 음과 양이 부딪치므로 빛나는 것인데, 玉女가 투호하면 번개가 된다. (電篇二十四 激陽爲電 熱氣散而爲電, 陰陽

는데, 이 순서를 보면 대체로 초반부는 천체로서의 일월성신을 다루고, 중반부는 기체나 구름, 노을처럼 대기층의 운기 현상을 다루었으며, 후반부는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기상 현상을 다루었다. 나름의 기준을 갖고 천상에서 기상으로 층차를 주어 점강하는 방식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 분류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음인지 곧이어 나온 당나라 초기의 류서류에서는 천상 관련 항목이 줄어든다. 당나라 초기 고조의 칙령으로 구양순(歐陽詢, 557-641) 등이 봉칙찬한 『예문류취(藝文類聚)』(100권, 624년)의 「천부(天部)」에는 천·일·월·성·운·풍·설·우·제(霽)·뇌·전·무·홍의 13항목이 설정되었고, 당 현종의 여러 왕자들 교육을 위해 서견(徐堅, 659-729) 등이 봉칙찬한 『초학기(初學記)』(30권)의 「천부」에서도 천·일·월·성·운·풍·뇌·우·설·상·박·노·무·홍예(虹蜺)·제청(霽靑)의 15항목을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를 대략하여 말하면, 풍운(風雲) 뇌우(雷雨) 상설(霜雪) 박로(電露) 무홍(霧虹) 정도를 기상의 대표 현상으로 수록하는 것이라 하게 된다.

표3-수당대 류서류의 천부(天部) 구성

	류서명	류문 내용
隋	『北堂書鈔』 160권 虞世南(558-638)	天部(天一, 日二, 晷三, 月四, 星五, 漢六, 雲七, 氣篇八, 霄篇九, 霞篇十, 霧篇十一, 靄篇十二, 暄篇十三, 霽篇十四, 虹霓篇十五, 風篇十六, 雨篇十七, 雪篇十八, 霜篇十九, 露篇二十, 霰篇二十一, 雹篇二十二, 雷篇二十三, 電篇二十四, 霹靂二十五) 歲時部(愆篇一, 律篇二, 麻篇三, 五行篇四, 歲篇五, 閏篇六, 春篇七, 夏篇八, 秋篇九, 冬篇十, 元正十一, 祖十二, 蜡臘十三, 伏十四, 屢十五, 小歲會十六, 三月三日十七, 五月五日十八, 七月七日十九, 九月九日二十, 春分二十一, 秋分二十二, 夏至二十三, 冬至篇二十四, 寒篇二十五, 熱篇二十六, 豐稔篇二十七, 凶荒篇二十八)
唐	『藝文類聚』 100권 歐陽詢(557-641) 等 奉勅撰	天部(天, 日, 月, 星, 雲, 風雲, 雨, 霽, 雷, 電, 霧, 虹), 歲時部(春, 夏, 秋, 冬, 元正, 人日, 正月十五日, 月晦, 寒食, 三月三日, 五月五日, 七月七日, 七月十五, 九月九日社, 伏, 熱, 寒, 臘, 律, 曆), 祥瑞部, 災異部
唐	『初學記』 30권 徐堅(659-729) 等 奉勅撰	天部(天第一, 日第二, 月第三, 星第四, 雲第五, 風第六, 雷第七, 雨第一, 雪第二, 霜第三, 雹第四, 露第五, 霧第六, 虹蜺第七, 霽晴第八) 歲時部(春第一, 夏第二, 秋第三, 冬第四 等)

擊耀 陰陽相薄, 陽分爭故 玉女投壺為電, 春分電為鞭策, 電為縣官, 曄曄震電 雷電晦冥.)
霹靂(벼락)은 양기가 준동하여 음양이 서로 부딪치되 빠른 것은 우레가 되고 격랑하는 것은 천둥이 된다.(霹靂二十五 陽氣之動 陰陽相薄, 急雷 激霆. 春雷滅歷至秋礮盡, [...]
霹靂棗樹 雷震柏木.)

그런데 이들 류서류 편집물은 기상 항목에 대해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 위주로 서술되어 있고, 기상예측과 같은 점후에 관한 설명은 아니다. 이에 기상점후학에 관련한 문헌을 따로 검토하면, 천부류 내지 천문류가 아니라 병서류나 방술(方術)류, 월령류, 세시류, 재이류, 점성류에 흠어져 수록되어 있다. 이들 여섯 방면으로 자료조사를 하는 일은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후속의 기회를 기다리고자 한다.

이에 이들 조사에 앞서 기상점후서의 직접적인 원전류를 찾아보면, 『점후해독(占候解讀)』(楊昶 편저, 廣西民族出版社, 1999)에 실린 자료가 적절한 참조가 된다. 이 책은 중국민속원전 주평총서(注評叢書)의 하나로 편집되었는데, 여기에 『탐춘역기(探春歷記)』, 『상우서(相雨書)』, 『천문점험(天文占驗)』, 『점험록(占驗錄)』, 『운기점후편(雲氣占候篇)』의 5종 문헌이 주석과 더불어 수록되어 있다.

첫째, 『탐춘역기』(1권, 60칙)는 후세에 선인(仙人)으로 칭해지는 한나라 동방삭(東方朔, BC 154-93)의 이름으로 가탁된 책으로, 『속수사고전서』 975책 자부(子部) 농가류(農家類)에 실려 있는데, 입춘절기와 갑자일의 시차에 따라 사계절 기상기후의 특성을 농사풍흉과 관련하여 4언절구로 설명한 짧은 분량의 글이다.

둘째, 당나라 황자발(黃子發)의 이름으로 유포된 『상우서』(1권)는 『신구당서』나 『송사』 「예문지」에 수록되지 않아 그 저작 시기를 분명히 알 수는 없되, 이 책이 송말원초 문인이자 자양(紫陽) 산허곡(山虛谷) 노인(老人)이라 자칭한 방회(方回, 1227-1307)가 대덕(大德) 8년(1304) 초(楚) 지역 여행 중에 고가(古家)에서 우연히 구하여 유포한 것으로 되어 있어⁴²⁾, 늦어도 송나라 말기에는 알려진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을 보면 후기(候氣)와 관운(觀雲)에서 시작하여 찰일월병성수(察日月並星宿), 회풍상성(會風詳聲), 추시(推時), 상초목충어옥석(相草木蟲魚玉石), 후우지천청(候雨止天晴)을 거쳐 도우(禱雨)와 기청(祈晴)까지 9조목으로 서술하였으며, 송원 이래로 기상점후학에 가장 직접적인 원전으로 널리 인용되었다.

셋째, 『천문점험』(1권)은 『명사』 「예문지」에 찬자 미상으로 실린 책인데, 명 말 만력연간(1573-1619) 매전도인(梅顯道人)이라 자호한 주이정(周

42) 楊昶 편저, 『占候解讀』(1999), 37-52쪽.

표4-중국 역대 점후서류 문헌

	문헌명	찬자	내용
漢	『探春歷記』(1권)	東方朔 (BC 154-93) 기탁	甲子日立春 丙子日立春 戊子日立春 庚子日立春 壬子日立春 乙丑日立春 丁丑日立春 己丑日立春 辛丑日立春 癸丑日立春 [...] 乙亥日立春 丁亥日立春 己亥日立春 辛亥日立春 癸亥日立春
唐	『相雨書』(1권)	黃子發 찬	候氣, 觀雲, 察日月並星宿, 會風詳聲, 推時, 相草木蟲魚玉石, 候雨止天晴, 禱雨, 祈晴
元	『田家五行』(3권)	婁元禮	상권 12월 점후, 중권 천문·지리·초목·조수·어류 등, 하권 삼旬·육갑·기후·消吉·祥符 등
明	『天文占驗』(1권)	周履靖 校訂	占天, 占雲, 占風, 占日, 占虹, 占霧, 占電, 占海, 占潮 및 12 월점
明	『占驗錄』(1권)	周履靖 撰	鬼谷子響卜法, 占夢, 占燈花, 占噴嚏, 占眼瞶, 占雨毛蟲類, 附: 禳祓事類
清	『雲氣占驗』(2권)	汪宗沂 (1837-1909)	상편 兵家 候望氣法, 하편 天氣 측후법 위주

履靖, 생물 미상)의 『이문광독(夷門廣牘)』(1597) 중 「잡점(雜占)」 속에 그가 교정(校訂)한 판본이 수록되어 전한다. 명대 사회에 넓게 유포된 기상서의 일종인 『천문점험』은 점천(占天), 점운(占雲), 점풍(占風), 점일(占日), 점홍(占虹), 점무(占霧), 점전(占電), 점해(占海), 점조(占潮) 및 12월점에 이르는 21항목에 걸쳐 민간의 기상적 경험과 속언 등을 5언절구 형식으로 수록하고 있다.

넷째, 『점험록』(1권)은 명나라 주이정이 역대 문헌 중에 몇 가지 점험류를 모은 편집물인데, 귀곡자향복법(鬼谷子響卜法), 점몽(占夢), 점등화(占燈花, 불뚝), 점분체(占噴嚏, 재채기), 점안순(占眼瞶, 눈 깜빡이기), 점우모충류(占雨毛蟲類), 부양발사류(附禳祓事類)의 9항목에 걸쳐 민간의 기상적 속신(俗信)을 수록하고 있다.

다섯째, 『운기점후(篇)』(2권)는 고대 병가의 후망운기침조(候望雲氣稷兆)에 관한 방술(方術)을 모은 것으로, 청나라 도려자(韜廬子) 왕종기(汪宗沂, 1837-1909)가 찬하였으며, 『절서촌사총간(浙西村舍叢刊)』에 수록되어 있다. 상편은 군진용병에 쓰이는 망기법을 위주로, 하편은 천기 측후법 위주로 서술되어 있다.

이들 외에 원나라 누원례(婁元禮, 생물 미상)가 편찬한 『전가오행(田家五行)』(3권)은 조선조 농서에도 매우 빈번하게 인용된 것으로 주목되며, 저자는 강남의 오(吳) 지역으로 들어가 농사를 지으면서 경험한 여러 기상점후 지식을 수록하고 있다. 상권은 정월에서 12월까지 점후를

수록하였고, 중권은 천문·지리·초목·조수·어류 등의 이야기를 실었으며, 하권은 삼순(三旬)·육갑·기후·연길(涓吉)·상부(祥符) 등의 일을 모았다.⁴³⁾

이상 6종 중에서 마지막을 제외한 문헌들은 명나라 농서류나 점후류에 널리 인용되었으며, 조선조 문헌들에서도 빈번하게 인용되었다.

3. 천문기상점후서 「위선지」와 조선 후기 기상점후론 개요

이렇게 기상점후에 집중한 문헌은 많지가 않고, 그 분량도 매우 짧은 특징이 있다. 이런 점에서 조선 후기 『임원경제지』의 「위선지」가 기상점후 관련 부분을 체계화하고 총집성하여 전문서로 편찬한 것은 기상점후서 방면에서 매우 주목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시도는 앞선 농서류 저작물에서 보이던 것이다.

명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농서인 서광계(徐光啓, 1562-1633)의 『농정전서(農政全書)』(1639) 권11 「농사(農事)」에서 <점후편(占候篇)>을 별도로 수록하였고, 목차를 보면 정월에서 12월까지 매달의 12월 점후를 실은 다음, 일·월·성의 천문점후와 풍·우·운·무·하·홍·뇌·진·빙·상·설의 기상점후를 실었고, 마지막으로 산(山)·지(地)·수(水)·초(草)·화(花)·목(木)·조(潮)·비금(飛禽)·주수(走獸)·용(龍)·어(魚)·잡충(雜蟲)에 이르는 물상점후를 실었다.⁴⁴⁾ 서광계가 다분히 주술적인 술후류를 신지 않은 점은 그가 당시 서양선교사 출신 천문학자들과 활발히 교류하는 등 서양과학에 영향을 받아 근대적 기상학 관점을 견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면 「위선지」 중 천문점후와 풍우점후 방면의 수록 내용을 통해 어떤 기상학적 점후체계를 추구하였는지를 살펴보자.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천문기상에 관한 점후론의 구조와 개요를 짚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첫째, 천문점후류 항목을 찾아보면, 「위선지」 권2에 점천·점일·점월·점천하가 있고, 권3에 점성이 있으며, 권4에 다시 점천·점일·점월·점성이 설정되어 있다. 권차를 달리하여 항목을 중복시킨 것은

43) 江蘇省建湖縣田家五行選擇小組, 『田家五行選擇』(北京: 中華書局, 1976).

44) 石聲漢校注, 『農政全書校注』(上海古籍出版社, 1979), 255-280쪽.

각각의 맥락이 같지 않기 때문인데, 권2는 표제어가 <후세(候歲)>(일년점후)이듯이 1년을 통하여 발생하는 가뭄이나 한파 등의 기후 변화를 중심으로 채록한 것이고, 권4는 표제어가 <후풍우(候風雨)>(풍우점후)이듯이 바람과 비 등 기상 변화에 집중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채록하고 있다. 예컨대, 동일한 <점천(占天)>의 천색(天色) 항목에서 권2는 “하늘이 높고 하얗다면 가뭄게 된다”는 말이 적혀 있으며, 권4는 “하늘색이 약간 누런색이면 바람이 분다”고 하여 바람 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 <점성(占星)>이 권3과 권4에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는데, 권3의 점성편은 하늘의 별자리 전체를 대상으로 한수(旱水)와 질병, 풍흉을 논하고 있으며, 권4의 점성편은 “별이 동요하면 큰 바람이 일 징조다”와 같이 풍우 변화에 집중하여 채록하는 차이가 있다. 또 권3의 <성변(星變)>은 오행성을 두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를 기후와 농사 풍흉으로 연결 지어 설명한 부분이어서 오성변(五星變)이라 제목함이 낫다.

「위선지」의 천문점후 항목을 추리면 표5와 같다. <점천(占天)>은 하늘의 색과 하늘에 비치는 기체의 모습, 하늘에서 소리가 울리는 것 등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를 논하고 있으며, <점일(占日)>은 일식(日食)에서 일식이 언제 드느냐에 따라 가뭄과 수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논하고 있다. 또한 일훈(日暈)에서 햇무리의 색깔이 검고 푸르느냐에 따라 기상 변화를 논하고 있으며, 일이(日珥)는 홍염이 폭발하는 등 태양 활동과 관련한 현상 또는 빛이 대기층에서 회절하거나 산란하면서 벌어지는 광학 현상의 일종을 기후와 풍흉으로 연결 지어 설명하고 있다. <점월(占月)>의 월식, 월훈, 월이 등도 마찬가지로 방식이다. <점천하(占天河)>는

표5-『임원경제지』 「위선지」의 천문점후 항목

권2	占天	天色, 天氣, 天鳴, 天裂, 天笑	5
	占日	日食, 日暈, 日珥, 日色, 日旁雲氣, 日異	6
	占月	月食, 月暈, 月珥, 月色, (月)凌犯, 月傍雲氣, 月異	7
	占天河	漢中星, 漢中雲	2
권3	占星	紫微垣(5좌), 太微垣(3), 天市垣(3) 東方七宿(5+9), 北方七宿(16+9), 西方七宿(12+13), 南方七宿(12+6), 五星(木火土金水) 星變(星色, 星行, 星合, 星守, 星犯, 星闕, 妖星, 客星, 流星, 彗星)	108
권4	占天	天色, 天氣	2
	占日	日暈, 日珥, 日色, 日出早晏, 日行失度, 返照, 靑白路, 日脚, 日落雲, 日傍雲氣	10
	占月	月蝕, 月暈, 月珥, 月色, 月偃, 月離星, 月傍雲	7
	占星	星動, 星流, 星墜, 夏星, 雨中星, 斗罡雲	6

표6-「위선지」의 풍우점후 항목

권2	占風	八風, 賊風, 風起方, 風起日辰	4
	占雨	甲子雨, 四卯雨, 壬子雨, 申日雨, 四時雨, 五朔雨, 夜雨, 雨異	8
	占雲	月朔雲, 雲形, 雲色, 雲入星宿	4
	占霧霞	子年霧, 四時霧, 六干日霧, 終日霧, 湖中霧, 天地霾, 霧松, 霞形	8
	占虹	五虹, 筋氣虹, 四時虹, 虹出方, 虹形, 虹色	6
	占雷電	四時雷, 雷聲, 雷起方, 雷起日辰, 晴雷, 夏雷	6
	占霜露	春冬霜, 孤霜, 非時霜, 霜不降, 霜候, 露潤物	6
	占雪	三白, 盈尺雪, 春秋雪, 雪不消	4
	占雹	四時雹	1
	占冰	四時冰, 長水退水冰, 冰三泮	3
권4	占風	風起方, 風休息, 風緩急, 春風, 冬風, 颶風, 嶺海風	7
	占雨	水面浮泡, 怕天亮, 遺晝, 黃昏雨, 五更雨, 驟雨, 隔田晴, 雨夾雪	8
	占雲	雲行, 雲形, 雲色, 雲起方, 朝暮雲, 夏秋雲, 天河雲, 接日雲, 老鯉雲, 六旬雲	10
	占霧	重霧, 朝霧, 霧色	3
	占霞	朝霞暮霞, 霞形色	2
	占虹	東西虹, 水虹風虹, 虹雨相食	3
	占雷電	雨前雷, 雲中雷, 夜雷, 雷聲, 電色, 南北閃	6
	占霜雪	春霜, 毛頭霜, 將雪先溫, 等伴	4

은하수에 별이 많으면 수해가 잦고 구름이 있으면 바람이 분다는 등의 점후를 수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천문점후 항목들은 천체의 일종인 일월성과 은하수 등을 지상의 기후기상 내지 농사풍흉과 관련하여 논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둘째, 다음 「위선지」에 수록된 풍우점후론을 살펴보면(표6), 기상 현상의 인소로 풍우·뇌전·운무·홍하(虹霞)·설박(雪雹)·상로(霜露)·결빙(結氷)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 민간의 기상관찰적인 속언(俗諺) 내지 기상경험적인 속신(俗信), 속설(俗說)들을 다양하게 채록하였다. <점풍>에서 바람이 일어나는 방위와 시일에 따라서 다른 점후를 논하였으며, <점우>에서 날짜에 따른 비의 점후라든가, 비가 낮에 멈추는 것, 새벽에 비가 내리면 낮에는 반드시 갠다는 것 등 여러 속설이 실려 있다. 바람은 종일 불다가 저녁이 되면 반드시 잠시 멈추는데 이를 두고 바람도 사람처럼 휴식한다고 본 것도 흥미롭다. 물고기 비늘 모습의 구름(老鯉雲)이면 비는 내리지 않고 바람만 분다고 하거나, 양 떼 모습의 구름이 3일간 끼면 반드시 큰 바람이 불고 흩비와 우박이 내린다는 속설 등은 매우 경험적인 점후론이다. 표6에 수록된 제목만 보더라도

표7- 「위선지」의 물상점후 항목

권2	占地 地異	1	
	占草木	草先生, 五木, 五穀草, 茭草, 看窠草, 野薔薇, 鳳仙花, 水花魁, 半夏, 雷葷, 葶, 葵, 冬青, 桃李, 杏棗, 栗, 楸, 楊柳, 槐, 梧桐, 杞, 檀, 益智, 映山紅, 竹, 木再花	26
	占穀	歲所宜, 稻, 麥, 扁豆, 蜀黍	5
	占禽獸	鵠, 鼎小鳥, 燕, 鴉, 水鳥, 異鳥, /鼠, 野鼠, 獾	9
	占蟲魚	蛙, 蠅, 蠶, 螢, 蟬, 蚱蜢, 蜻蜓, 蛇, /魚散子, 鯉, 鯽, 鱖魚, 鱣魚, 文鯪, 海鵝白袋, 龍	15
권4	占地 地濕	1	
	占山水	山色, 起雲收雲, 半山雨, 水生苔蘚, 水有香, 河浮稻	6
	占草木	屋上菌, 橡樹	2
	占禽獸	風翔雨舞, 鳩, 鴉, 鶯, 鸛, 鷺, 雞, 鷺, 雀, 屋+鳥, 喫鷓, 鬼車鳥, 九道遙鳥, 田雞, 焦明, 狗, 貓, 牛羊, 豬, 鐵鼠	20
	占蟲魚	蟻, 蜻蜓, 蜘蛛, 蠓, 天牛, 蚊, 蠅, 蠅, 蝦蟆, 石蛤, 青蛙, 螺, 蟹, 蛇, 水蛇, 魚, 龍	16
	雜占	竈烟, 竈灰, 琴瑟柱壁, 人聲	4
권4	占時候	春寒, 花信風, 料峭風, 猛風, 春水, 請客風·送客雨, 一犁雨, 社公雨, 斷霜雪, 麥秀寒, 黃梅雨, 哭雨風, 立秋朝暮, 橫港水, 霜降信, 秋水, 立冬信, 各天會合	18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풍우기상의 변화를 예측하려 하였는지 그 고심의 깊이를 읽을 수 있다. 현대 기상학적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것도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징험할 수 있는 경험적 기상지식이 집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위선지」의 풍우점후론은 전통시대 생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셋째, 다음 「위선지」의 물상점후류를 살펴보면(표7), 초목류가 가장 많은데, 권2에 26항목, 권4에 2항목으로 모두 28항목에 걸쳐 기상기후의 변화를 예후하고 있다. <점곡(占穀)>의 5항목까지 합하면 33항목에 이른다. 다음으로 많은 항목이 충어류이며, 권2에 15항목, 권4에 16항목으로 모두 31항목이다. 다음으로는 금수류가 많으며, 권2에 9항목, 권4에 20항목으로 모두 29항목이다. 그 외 <점지(占地)>의 지습(地濕)은 지면에 습기를 보고 폭우가 내리는지를 본다는 것이고, 지이(地異)는 땅에서 백모(白毛)가 생기는 것이나 하얀 밀가루 같은 것이 나오는 이상 현상을 이르고 있으며, 이를 기후 변화와 연관된다고 본 것이다. <점산수(占山水)>는 산의 색깔이 맑은지 어두운지를 보고 맑거나 비가 내린다고 보는 것들인데, 구름이 산에서 무성하게 일어나는 것이나, 오랜 비가 산중턱에 내려 산이 무너지는 것이나, 물비린내를 맡거나 물속의 이끼를

보고 바람 부는지 홍수가 드는지를 알 수 있다고 본다. <잡점>은 부엌 연기나 부엌 재 등의 형태를 보고 점후하는 따위이며, <점시후(占時候)>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기상기후 관련 점후 속설들을 채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위선지」는 매우 다양한 자연물의 소재와 현상을 관찰하여 기상기후의 변화를 예측하려는 노력의 총결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이 항목들의 구성과 거기에 수록된 속설들을 통해 조선시대 천문기상의 점후론 개요를 파악할 수 있다. 비록 천일월성(天日月星)과 같이 천체를 표제어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록하고 있는 내용이 주로 대기층에서 벌어지는 기상공간의 현상들을 위주로 채록하는 것이어서 일반 「천문지」에서 다루는 천변 현상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위선지」는 천체로서의 천상과 기상으로서의 천상을 구분하는 것이어서 크게는 천문과 기상의 분리를 시도한 작업으로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위선지」를 간명히 정의하자면 전통시대 기상점후서의 집약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선시대 문헌 중에 이만큼의 전문서를 펴낸 것은 「위선지」 외에는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임원경제지』 「위선지」에 더욱 많은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전통시대 기상예측과 관련한 점후학(占候學) 분야를 검토하면서 삼후론(三候論)이라 포괄할 수 있는 시후(時候), 물후(物候), 술후(術候)라는 세 갈래의 점후론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흐름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절후법(節候法)의 성립은 매우 중요한 천문기상학적 성취라 할 수 있는데, 24절기법과 72절후법이 별개의 흐름으로 전개되었다가, 후일 두 내원이 결합되면서 비로소 기상예후에 관련한 절후론(節候論)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음을 개략적으로 짚어보았다.

전통시대 점후론의 주요 기반은 태양의 주행에 따라 계절적 변화를 보이는 시후류(時候類)인데, 가장 쉽게 관찰되고 구별되는 논법은 사계절에 따라 논하는 시령론(時令論)이 있고, 이는 12개월 매달의 일기 변화를 논하는 월후론(月候論)으로 발달하였는데, 이런 분야를 묶어서 월령 계통이라 일컬었다. 『여씨춘추』의 「십이기」 이래, 『예기』 「월령」과 『회남자』

「시칙훈」 그리고 『일주서』 「시훈해」는 12월후와 72기후표의 골간이 되는 근거가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이런 논의 구조로 말미암아 전통시대 기상점후서의 집약이기도 한 『임원경제지』 「위선지」가 12월점 편목의 세후(歲候)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시후류 중에는 천일월성(天日月星)의 천상(天象) 항목을 위주로 점후하는 천문점후론이 있고, 풍우·뇌전·운무·상설 등의 기상 현상을 다루는 풍우점후론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풍후론은 기상점후의 근간이 되는 현상들이어서 이에 관한 관찰과 경험의 집적은 매우 중요한 분야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시후류는 대개 일상생활 공간의 주변에서 접하거나 관찰되는 경험적 지식을 체계화하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그 관찰 대상이 되는 자연물에 주목하게 되면 그것이 곧장 물후론(物候論)으로 연결된다. 물후의 대상에 따라 초목류 점후나 금수류 점후 내지 층어류 점후 및 신수류 점후가 있으며, 여기에는 부엽의 재가 날리는 것을 보고 혹은 재채기로 점후하는 것 등 여러 생활류 점후도 흥미로운 내용들이다. 현대 기상학과 같은 장비가 발달하지 않은 전통시대에서 기상예후를 위해 촉각을 드리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론이 바로 이 물후 분야라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술적 점후론이 발달한 것은 전근대시대가 가지는 한계라 할 수 있는데, 이 술후론 분야에는 역법의 간지역일을 따라 예후하는 역일점후류가 있고, 한의학의 오운육기론에 기반한 운기점후류가 있으며, 주역의 괘상을 절기 변화와 연관 지어 설명하는 역리점후류가 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각종 별자리와 연관하여 논의하는 점성점후류 또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역일점후류 속에는 다시 간지의 조합에 주목하는 간지역일점후와 명리학적 길흉일 논리로 접근하는 길흉역일점후 및 단지 음력 날짜로만 논하는 음력역일점후, 점성법에 기반하여 예후를 논하는 점성역일점후가 있으며, 여기에서 각종 기상이 발생하는 방위에 따라 예후하는 방위점후류가 결부되어 한층 복잡한 술후론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끝으로 전통시대 저작물에서 천상과 기상 분야를 어떤 관점과 구조로 서술하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기상 현상에 관련한 내용은 역대 「천문지」나 「역지」 및 「오행지」로 흩어 기록하는 관계로 기상점후론이 독립된 장르로 발달하지는 못하였으며, 다만 오행지학의 「오행지」

속에서 자연재해 관점에서 기상 현상이 다수 채록되는 성격임을 살펴보았다.

다음 문물전장제도의 문화사 전반을 백과전서적으로 기술하는 류서류 문헌을 일별해 볼 때, 천부류나 천문류 속에 천체로서의 천상과 기상과 관련한 풍우 항목을 편제하여 서술하고 있지만 주로 개념적 정의나 속성 위주로 서술하였고, 대부분 기후예측에 관련한 점후론적 서술은 아니었음을 살펴보았다. 물론 좀 더 정합적인 논의는 추후 심화된 연구를 기다린다.

이런 중에 『탐춘역기』라든가 『상우서』, 『전가오행』, 『천문점험』, 『운기점험』 등의 점후서류 문헌은 기상점후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텍스트로 주목되었다. 그렇지만 분량이 짧고 산만한 서술로 인하여 어떤 체계적 논의구조로 발전시킨 것은 아니었다. 이에 『농정전서』라든가 『증보산림경제』 등의 농서류 중에 포괄된 점후 분야 서술을 주목할 만하다 보았으며, 이런 흐름 중에 조선 후기 『임원경제지』 중의 「위선지」는 전통시대 기상점후서로 가장 집약된 서술체계를 보인 것이어서 돋보였다. 천문점후와 풍우점후, 물상점후 측면에 대한 「위선지」의 항목 구성과 내역을 통해 대략적이거나 조선시대 점후론의 논법과 면모를 읽으려 하였다. 더욱 체계적이고 심화된 분석은 후일의 기회로 미룬다.

이렇게 본고에서 전통시대 기상예측의 자료와 점후론 구조를 읽고자 하였으나 아직 더 많은 자료 천착과 분석을 요청하고 있어 미흡한 감이 적지 않다. 그러함에도 전통시대에 기상기후 변화에 관련한 자연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려 하였는지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는 학술토대적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 논의는 나아가 전근대시대의 자연학과 자연관을 구성하는 주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미희·구자옥·노경희·이상영, 「고농서에 나타난 관천망기의 지혜」. 『농업사연구』 제8권 3호, 한국농업사학회, 2009. 12.
- 김일권, 「각월령기후징표와 『침구요결』의 천지인물기후상응도」. 『장서각연보』 5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3. 2.
- _____, 『고려사의 자연학과 오행지 역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a.
- _____, 『국역고려사 14 역지 역주』.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b.
- _____, 『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예문서원, 2007.
- _____, 「조선시대 민속문화 관련 류서류 편찬물 현황과 특성」. 『역사민속학』 제32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0. 3.
- _____, 「진한대 방사의 성격과 방선도 및 황로학의 관계 고찰」. 『동국사학』 44호, 동국사학회, 2008. 6.
- 김일권 역주, 『임원경제지 위선지』 1·2책. 소와당, 2011. 12.
- 노기춘, 「조선조 농서의 서지학적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2.
- _____, 「임원십육지 인용문헌 분석고(1): 농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 2006. 3.
- 농업진흥청, 『증보산림경제』 3책. 고농서국역총서 6, 2004.
- 서유구, 『임원경제지』. 보경문화사 영인본, 1983.
- 정연택 역, 『국역서운관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 조창록, 「서유구·서우보 부자의 放廢期 행적과 蘭湖 생활」. 『한국실학연구』 제16권, 한국실학학회, 2008.
- 최덕경, 「중국고대의 物候와 農時 예고」. 『중국사연구』 18집, 중국사학회, 2002.
- _____, 「17-18세기 조선 농서에 나타난 점후의 성격: 水稻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16호, 부경역사연구소, 2005. 6.
- _____, 「점후를 통해 본 17·18세기 동아시아의 농업 읽기」. 『비교민속학』 32집, 2006.
- 江蘇省建湖縣田家五行選擇小組, 『田家五行選擇』. 中華書局, 1976.
- 謝世俊, 『中國古代氣象史稿』. 重慶出版社, 1992.
- 石聲漢校注, 『農政全書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79.
- 楊昶 편지, 『占候解讀』. 廣西民族出版社, 1999.
- 清 周右曾, 『逸周書集訓校釋』(臺灣 商務本). 世界書局, 2009.
- 竺可楨·宛敏渭, 『物候學』. 科學出版社, 1979.
- 洪世年·陳文言, 『中國氣象史』. 農業出版社, 1983.
- 黃暉 撰, 『論衡校釋』. 中華書局, 1990.

국 문 요약

이 글은 기상기후 관련 역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전통시대 기상예측 논리이기도 한 점후론의 맥락과 구조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시대에 점후란 말은 서운관의 기상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세종실록』에서 찾을 수 있다. 자연의 사태를 미리 보고 기상기후를 묻는 행위인 기상점후론은 다양한 후학(候學)의 일종이며, 특히 계절에 따른 동식물과 자연물의 징후를 관찰하여 기상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영역은 대개 물후학(物候學)이라 불려왔다. 그러나 전통시대 기상학은 인간 주변의 경험적 지표를 위주로 하는 미시학 성격이 강하고, 기상의 변화를 천문학의 일종으로 취급한 까닭에 기상에 관한 전문서가 발달하지는 않았다. 이런 중에 19세기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위선지」는 독립된 편장으로 기상기후의 문제를 종합한 저서로 주목되는 것이었다.

이 「위선지」의 구성을 통해 전통시대 기상점후론의 구조와 면모를 읽을 수 있는 바, 크게 세시점후, 천문점후, 풍우점후, 물상점후, 술수점후의 다섯 종류로 가릴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성격상 재분류를 하면, 시후(時候)와 물후(物候) 및 술후(術候)의 삼후론(三候論)으로 구성된다 보았다. 『증보산림경제』 역시 이와 동일한 삼후론의 구성을 보였으며, 특히 현대에 와서 사실상 기상과학적 의미를 잃어버린 술후론 영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조선조 농서류 문헌의 특징이기도 하였다.

또한 기상기후가 태양의 변화, 곧 시간의 변화에 매이는 성격인 까닭에 시후의 토대가 되는 24절기법과 72후법이 성립되는 문제를 기원전 2세기 전후 중국 고대 문헌인 『회남자』와 『일주서』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 특히 72후법은 대부분 주변 동식물의 변화를 통해서 기상기후 변화를 추단하는 물후학의 성격을 지니는데, 역대 역법서에 간요하게 수록되는 기후표로서 중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기상점후서의 자료는 어떤 흐름으로 집성되어왔는지를 중국 류서류의 천부 내지 천문류를 통해 검토하였고, 이와 다른 갈래로 직접적인 기상서로서 『탐춘역기』, 『상우서』, 『전가오행』, 『천문점험』, 『점험록』, 『운기점후』 등이 주목되었다.

기상점후서 측면에서 조선 후기 「위선지」가 수록한 기상학적 점후체계를 상고하여, 천문점후론과 풍우점후론 및 물상점후론의 면모를 일별하였

다. 이렇게 「위선지」는 매우 다양한 자연물의 소재와 현상을 관찰하여 기상기후의 변화를 예후하려는 노력의 총결산물로서, 여기에 수록된 항목과 내용들을 통해 조선시대 천문기상의 점후론 개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투고일 2012. 12. 20.

심사일 2013. 1. 30.

게재 확정일 2013. 2. 27.

주제어(keyword) 점후론(ancient meteorological prediction theory), 물후학(nature phenology), 시후론과 술후론(seasonal and magic climatology), 24절기(twenty-four solar terms), 72후(seventy-two climate terms), 기상점후서 「위선지」(the *Wisun-ji* of chosun meteorological text)

